

2022 05 Vol. 383
<http://cafe.daum.net/ocdskr>

가르멜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The Secular Order of Discalced Carmelites of Korea

글, 사진 : 김영문(성령의 브루노) 신부
광주 수도원

선 물



맛있게 아침에 먹고
다시 식탁에 오른 깨죽 한 그릇
보다 더 맛있는 요리를 찾는 눈길들이기에
여전히 남아있는 깨죽 한 그릇!

누가 보냈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분을 아는 나는
기쁘게 다시 즐기는 건강 음식!

푸른 오월
하늘과 산, 숲과 상쾌한 바람
어디서 왔고 누가 보냈는지
잊고 지내다 다시 생각나서 드리는 기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느님!

CONTENTS

- 02 갤러리 / 김영문(브루노) 신부
선물
- 03 차례
- 04 수도회 역사 / 윤주현(베네딕토) 신부
가르멜 수도회 역사(64)
- 08 영성 / 신호준(마리오) 신부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5)
- 13 웅달샘 / 박종인(라이문도) 신부
영성체
- 14 자서전 연구 / 윤주현(베네딕토)신부 옮김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36)
- 18 예수의 성녀 데레사 시 / 김석영(요셉) 수사
성녀 카타리나에게
- 20 서품 소감 / 허선형(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부르심
- 22 선교 / 김석영(요셉) 수사
<문화 적응주의 선교>의 선구자
마태오 리치 신부의 생애(中)
- 26 성소 / 성소 위원회
가르멜로 74-54길
- 28 추모글 / 김석영(요셉) 수사
안셀모 수사님을 기리며
- 32 가르멜프락 / 박계용(도미니카)
그대도 오세요
- 35 회원의 글 / 안병희
성모님
- 36 가르멜프락 / 김순상(베로니카)
그리움의 주머니(2)
- 38 가르멜프락 / 반숙자(벨라뎃다)
섬
- 40 가르멜 인터뷰-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
다시 쓰는 창립사, 평화의 언덕!
- 45 구역모임 영적독서 자료(238)
2022년 7월 영적나눔
- 47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 48 비둘기
- 52 그림단상
- 표지그림**
- 5월의 성모**
(신호준 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作)

발행인: 재속 맨발 가르멜회 한국관구 통권 제383호 (2022 5. 1) 가르멜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신부

주소: 03079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8-8 (가르멜 관구 수도원 내) 전화: 010-4460-0713

카페: <http://cafe.daum.net/ocdskr>

계좌: 우리 1006-101-537099,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가르멜수도회 관구재속회 CARMELITE ORDER

* 수도회 역사 *

가르멜 수도회의 역사 (64)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 인천 가르멜 수도원

17) 안틸리스 제도¹⁾

① 도미니카 공화국에서의 창립

스페인의 카스티야 관구는 쿠바에 수도원들을 설립한 후, 1951년 도미니카 공화국, 정확히는 산토도밍고(Santo Domingo)에 수도원을 설립했다. 이 수도원은 기존에 필라르데사바나델마르 성모님께 봉헌된 성당에 세워졌다. 그러나 예견치 못한 사건, 즉 당시 정권을 잡은 독재자 라파엘 트루히요(Rafael I. Trujillo)로 인해 1960년 이 공동체의 수사 5명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추방당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들은 스페인으로 귀국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러 푸에르토리코로 가게 된다. 그러나 1명의 수사가 도미니카 공화국에 남아 명맥을 유지했다. 1961년 독재자가 암살된 후, 도미니카 공화국에는 다시금 자유의 기운이 돌았고, 수사들은 이듬해인 1962년에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 수도원을 복원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본당을 비롯해 산 후다스 타

데오 학교를 건축했다. 그 후, 이 학교는 대략 1,000명 정도의 학생이 공부하는 곳으로 수준 높은 곳으로 발전했다. 1985년 수사들은 수도인 산토도밍고에 학생 수도원을 설립했으며 1993년에는 영성 센터를 설립해서 가르멜 영성을 전파하고 있다. 또한, 출판사 EDECA를 설립해서 영성 잡지인 「성령과 삶」(Espiritu y Vida)를 비롯해 다양한 가르멜 서적을 출판, 보급하고 있다. 수사들은 라베가(La Vega) 교구의 토레(Torre)에 수도원과 고등학교 그리고 본당을 지어 이곳을 중심으로 사목에 전념하기도 했다. 한동안 이곳에는 수련소가 마련되어 수련자들이 양성되기도 했다. 1988년에는 제2의 도시인 산티아고데로스카바예로스(Santiago de los Caballeros)에 수도원을 지어 한동안 수련소로 운영했으며 역시 이곳에도 본당을 지어 사목활동을 했다. 1996년에는 수사들 가운데 아만치오 에스카파(Amancio Escapa) 신부가 산토 도밍고의 보좌 주교로 임명되는 경사를 맞기도 했다.

② 푸에르토리코에서의 창립

앞서 1960년에 독재자의 횡포로 인해 도미니카 공화국의 수사들이 어떻게 그 나라에서 추방당했는지 살펴보았다. 당시 1명의 수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푸에르토리코의 수도인 산후안(San Juan)으로 가서 새로운 창립을 도모했다. 그의 노력으로 1961년 산후안에서 20km 떨어진 카구아스(Caguas)에 새로운 수도원이 설립되었다. 훗

1) 안틸리스 제도(Antilles)는 카리브 해의 서인도 제도의 섬 중 루케이언 제도를 제외한 섬을 말한다. 북쪽의 큰 섬들로 이뤄진 대안틸리스 제도와 동쪽의 작은 섬들로 이뤄진 소안틸리스 제도로 나뉜다. 소안틸리스 제도 남서부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가까운 섬들은 리워드안틸리스 제도로 세분된다. 지질학적으로 대안틸리스 제도는 대륙판에 속한 안정된 섬들이고 소안틸리스 제도는 화산섬이나 산호섬이 대부분이다. 안틸리스라는 이름은 스페인의 서쪽 대서양 저편에 존재한다고 믿었던 가상의 섬 안티야(antillia)에서 유래한 것으로 중세 지도에서는 카나리아 제도와 인도 사이에 존재한다고 그려졌다.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한 후로, 카리브 해와 멕시코 만에 걸쳐 존재하는 여러 섬들을 안틸리스 제도라 부르게 되었다.

날 수사들은 이곳에 본당과 학교를 지어 운영했다. 두 번째 수도원 창립은 폰세(Ponce)에서 이루어졌다. 수사들은 특히 이곳에 있는 가톨릭 대학에서 교수로 활동했으며, 1963년에는 본당을 받아 운영하기도 했다. 1993년에는 쿠바와 도미니카 공화국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와 마이애미의 가르멜 수도원들을 하나로 묶어 카스티야 관구 직속의 지부를 형성하도록 했다.

18) 파라과이에서의 창립

남미에서 맨발 가르멜의 창립은 파라과이에서의 창립과 더불어 완성된다. 이미 수녀들은 수사들보다 먼저, 즉 1951년에 그곳에 진출해 있었다. 수녀들은 수사들의 진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으며 특히, 젊은 남성 성소자들의 발길을 위해 애썼다. 그들은 1981년 부르고스 관구에서 파라과이에 진출해서 수도원을 지을 수 있는지를 로마 총본부의 총평의회에 문의한 바 있다. 이에 총평의회는 부르고스 관구와 협의를 통해 긍정적인 대답을 주었다. 결국, 몇 년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1985년 2월 2일 부르고스 관구의 수사들이 진출해서 아순시온-람바레(Asunción-Lambaré)에 수도원과 영성센터를 건립했다. 현재 이 수도원은 수련소이자 영성적인 사목을 위한 공동체로 사용되고 있다. 그 후, 수사들은 지원자와 청원자들의 양성을 위해 1995년 산호세 로가(San José Roga)에 또 다른 수도원을 건립했다. 또한, 수사들은 아순시온 가르멜 수녀원 출신의 거룩한 수녀인 ‘치키통가 수녀’(1925-1959)의 생애와 영성에 대해 연구해서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7년 12월 13일 그녀에 대한 시복 소송이 시작되어 그 수녀는 2010년 3월 27일 가경자가 되었으며, 마침내 현 교황님에 의해 2018년 6월 23일 시복되었다.

8. 북아메리카에서 맨발 가르멜의 창립

1) 캐나다에서의 창립: 캐나다에는 1875년에 이미 프랑스의 랭스(Reims) 가르멜이 진출해서 몬트리올 가르멜을 창립한 바 있다. 캐나다에 남자 가르멜이 진출한 것은 20세기 중반에 들어와서였다. 아비뇽 아키타인 관구의 수사들은 1957년 니콜레(Nicolet) 가르멜을 창립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직후, 성소의 부족으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캐나다에서 다시 창립이 시도된 것은 1989년 온타리오주의 런던(London) 수도원 창립을 통해서였다. 이 창립은 로마 총본부의 총평의회 주도 아래 이루어졌다. 설립 목적은 가르멜 수녀들과 재속회원들을 도와주기 위해, 그리고 남자 가르멜 성소를 계발하고 캐나다에 가르멜 영성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주도한 관구는 말타 관구로 이 관구의 회원들은 1995년부터 정식으로 책임을 맡아 캐나다의 영어권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편, 캐나다의 프랑스어권인 퀘벡에는 1993년 아비뇽-아키타인 관구의 회원들이 진출해서 수도원을 세웠다. 당시 창립 멤버로 참여한 회원들 중에는 아비뇽-아키타인 관구에 입회해서 양성을 받은 캐나다 출신 회원들도 여럿 있었다. 창립 멤버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밀도 깊은 삶을 살았다. 수도생활에 있어서나 수녀들을 돕는 면에 있어서 그리고 재속회원들의 사목에 있어서 혼신을 다했다. 또한, 그들은 본당 사목을 비롯해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증진하는 데에도 열심이었다. 그들의 모범을 보고 많은 성소자들이 가르멜 성소를 살기 위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다. 캐나다의 가르멜 회원들은 캐나다 내의 알버타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도 수도원을 설립했다.

2) 미국에서의 가르멜 창립

① 워싱턴 관구: 캐나다와 마찬가지로, 맨발 가르멜이 미국에 진출한 것은 가르멜 수녀들이 먼저였다. 미국에 첫 번째 가르멜 수녀원이 세워진 것은 1790년 발티모어에서였다. 반면, 남자 가르멜 회원들은 20세기 초에 이르러서야 미국에 진출했다. 미국에 진출한 남자 가르멜 회원들은 독일의 바이에른 관구 소속이었다. 이들은 당시 비스마르크의 박해로 인해 1906년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와야 했다. 첫 번째로 창립된 수도원은 그들이 도착한 바로 그해 위스콘신에 있는 홀리 힐(Holy Hill) 가르멜이었다. 이 수도원은 신자들의 도움인 보호자 동정 성모님 성지 근처에 세워졌다. 수사들은 시간을 두고 수도원을 넓게 지었다. 훗날 이 수도원은 수련소이자 영성 센터로 활용되었다. 1911년 수사들은 역시 위스콘신주의 밀워키(Milwaukee)에 두 번째 수도원을 세웠다. 이 수도원에 이어 여러 수도원들이 창립되었다.

당시 미국에는 바이에른 관구에 의해 창립된 수도원들만 있는 게 아니었다. 1918년에는 스페인의 카탈루냐 관구에서 진출해 워싱턴(Washington) 수도원을 세웠다. 1940년 총본부는 이들을 하나로 묶어 준관구로 승격시켰으며 1947년에는 관구로 승격시켰다. 관구 승격과 동시에 워싱턴 관구 회원들은 필리핀 케손 근처의 인판타(Infanta) 지역의 선교를 책임지게 되었다. 그들은 인판타에서 그곳 출신 사제들과 협력하는 가운데 선교에 헌신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일부가 필리핀 준관구에 남기도 했다. 1995년 워싱턴 관구는 아프리카 케냐의 나이로비(Nairobi) 수도원을 인수해서 새로운 선교 활동에 헌신하고 있다.

② 오클라호마 관구: 20세기 초 스페인의 아라곤-발렌시아 관구의 회원들은 멕시코에 몇 개의 수도원을 설립한 바 있다. 그 중에는 토레온(Torreón) 수도원도 있었다. 그러나 당시 대중의 인기를 등에 업고 혁명을 시도한 판초 비야가 그 도시를 점령한 후, 그곳의 가르멜 수사들은 붙잡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있었다. 이 위기를 인지한 독일과 영국의 영사들은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개입해서 간신히 사형을 면할 수 있었다. 그 대신 이들은 멕시코로부터 추방되고 말았다. 결국, 이들은 미국으로 망명하게 됐는데, 미국에서는 이들을 환대했다고 한다. 이들은 여러 도시를 거쳐 오클라호마주에 이르렀는데, 그곳에는 멕시코 출신의 많은 노동자들이 살고 있었다. 그들에게는 자신을 돌봐줄 사제들이 필요했고, 이에 가르멜 수사들은 그곳의 교구장에게 그곳에 머물며 신자들을 돕고자 하는 자신들의 원의를 표명했다. 교구장은 이를 즉시 허락하며 그들에게 시험기간을 주었다. 이에 수사들은 성심을 다해 멕시코인 신자들을 위해 봉사했으며, 교구장은 그들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며 수도원을 설립할 수 있는 허락을 주었다. 이렇게 해서 1917년에 하츠숄(Harstshorne) 가르멜을, 1922년에는 오클라호마시티(Oklahoma City) 가르멜을 설립했다. 이어서 1926년에는 샌안토니오(San Antonio) 가르멜과 달라스(Dallas) 가르멜을 설립했다. 이렇게 여러 수도원들이 설립되면서 많은 성소자들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고 회원들의 숫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곳의 수도원들은 1936년 1월 1일 준관구로 승격되었으며, 1947년에는 관구로 승격되었다.

③ 캘리포니아-애리조나 관구: 20세기 초 스페인의 카탈루냐 관구의 회원들은 두랑고(Durango), 할리스코(Jalisco) 등 멕시코의

여러 지역에 수도원을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은 당시 멕시코가 외국인들에게 상당히 불안정하고 위험하기 까지 하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이에 그들은 자신들이 추방당했을 경우,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했다. 결국, 1911년 성 엘리야의 베드로(Pedro de San Elias) 신부는 미국의 애리조나주를 적당한 지역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을 환대하는 주교의 호의로 애리조나주의 투손(Tucson)에 안착했다. 그 후, 회원들이 추가로 도착하면서 이들은 애리조나주에 여러 수도원들을 설립해서 활동 영역을 확장시켜 갔다. 1959년 당시 이곳의 수도원들은 로마 총본부 총평의회에 속해 있었다. 그 와중에 1924년 아일랜드의 수사들이 캘리포니아주에 도착해서 알함브라 근교에 수도원과 본당을 짓고 활동을 시작했다. 이 공동체는 서서히 성장해 갔다. 1964년 4월 2일 애리조나주에 있는 수도원들은 하나로 합쳐져 캘리포니아 지부로 승격했다. 그리고 1983년 관구로 승격함으로써, 미국에서 세 번째 관구로 탄생했다.

미국의 가르멜 회원들은 20세기 후반에 다른 여러 나라(폴란드, 스페인의 카스티야)에 진출해서 수도원들을 설립하기도 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애리조나 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관구는 성소자의 감소로 인해 쇠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의 여러 관구에서 재속회원들의 숫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살아가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맨발 가르멜 회원들은 170여 명에 이르며 26개의 수도원이 있다.

(다음 호에 계속)

(17쪽에서)

이번 경우에, 성녀는 일련의 비유에 호소했다. 이는 설명에 있어서 결정적 요소로 드러난다. 이를 가리켜 보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성녀에 따르면, 이러한 그분의 현존은 볼 수 없지만 어두운 곳에 확실히 있는 그런 친구의 현존과 같다. 또한, 그분의 현존은 마치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 그 곁에 있는 동료의 현존과 같다(3절). 또한, 성녀는 이렇게 말한다: “예민한 청각이 주어진 탓으로 귀를 막을 수 없고 옆에서 높은 말소리가 들리므로 듣지 않으려 해도 듣게 되는 사람과 같습니다”(8절). “이는 마치 먹지도 않았는데 위 속에 들어 있는 음식과 같아서 우리는 어떻게 그것이 거기 들어 있게 되었는지를 모르나 그것이 거기 있다는 것만은 잘 압니다”(7절). 또한, 그것은 “ABC를 외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는데”(8절) 책들이 담고 있는 모든 지혜를 소유한 것에 비유되기도 한다(“이 마지막 비유는 이러한 천상적인 선물에 대해 조금이나마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9절]). 그리고 그것은 마치 말과 몸짓의 중개 없이 천상 실재들이 전해지고 이해되는 것과 같은 방식에 비유되기도 한다.

(다음 호에 계속)

* 영성 *



레오니 마르탱: 힘겨웠던 생애(15)

마리 보맹-크르와 지음/ 메어리 프랜시스 무니 옮김(영어)
신호준(하느님 사랑의 마리오) 신부 옮김/ 인천 수도권

데레사에 대한 레오니의 끊임없는 생각들

레오니는 데레사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했다. 데레사는 레오니와 아주 가까이 있었다. 왜냐하면 데레사는 천국에서 레오니에게 도움을 주었고 모범이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레오니는 자주 가르멜 수녀원 성당을 방문했다. 그녀는 데레사의 무덤에 꽃다발을 놓아두었으며, 데레사로부터 받은 편지들을 되풀이해서 읽었다. 그리고 레오니는 데레사의 마지막 날들에 대해 생각했다. 그 당시 레오니는 언니 동생들이 환자인 작은 동생이 했던 말들을 전부 자기한테 해주었을 때 한 마디도 빠뜨리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경청했던 것이다.

선종하기 며칠 전에, 데레사는 성심의 마리 수녀에게 청해서 레오니에게 전하는 메모를 적도록 했는데, 레오니가 사랑과 겸손으로 살아가도록 부탁하는 내용의 메모였다. 그렇게 살고자 자기 자신을 자극하는 차원에서, 레오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폴린은 그 편지를 데레사가 선종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레오니에게 전해주었다.

며칠 전에, 난 데레사에게 마침내 이런 눈물의 골짜기를 떠나 영원한 천국의 행복을 즐기게 되었으니 틀림없이 너무 행복할 거라고 말해주었어. 그러자 데레

사는 다음과 같이 답을 했는데, 너무 감탄을 자아내는 답변이라 그 즉시 적어두었다. “아, 작은어머니, 오늘 저녁 전 멀리 기차역 방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지요. 머지않아 훨씬 더 아름다운 음악소리를 듣게 되겠지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즐거운 느낌은 덧없이 지나가 버릴 거예요. 기쁨을 생생하게 느껴본 지도 참 오래되었네요. 그래서 전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것에 마음이 끌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자신의 행복에 대해선 거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전 오로지 제가 앞으로 받게 될 사랑과 제가 줄 수 있을 그런 사랑에 대해서만 생각하거든요.”

한 영혼 이야기

『한 영혼 이야기』는 1898년 9월 말에 출판되었다. 레오니는 (출판되자마자) 곧바로 그 책을 탐독했으며, 공유하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을 다시금 발견하고서는 감격해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레오니는 마침내 데레사와 데레사가 사랑하는 주님이 공유했던 사랑의 비밀에 대해 알게 되었다. 『한 영혼 이야기』는 레오니가 침대 곁에 두고 읽는 책이 되었다. 곧 레오니는 그 책을 통해 다시금 성소에 대한 희망을 얻었던 것이다.

레오니의 마음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방문(수녀)회로 이끌렸다. 하지만 그녀는 허약한 건강과 타고난 활동성향 때문에 망설였다. 그렇게 타고난 활동성향 때문에 이따금 다른 사람들은 레오니가 우유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그와는 다르게 사실 레오니는 고집스러울 정도로 의지가 강했던 것이다.

앞으로 어느 날, 레오니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 1910년 데레사의 시복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그와 같은 내용을 증언할 것이다. 곧 1888년 초에, 레오니가 방문회에 입회하려고 첫 번째 시도를 한 이후에, 데레사가 리지외의 베네딕도 수녀원의 한 수녀에게 다음과 같이 예언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을 말이다. “우린 수도생활에 대한 레오니 언니의 여러 번의 시도가 성공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세상을 떠난 후에, 레오니 언니 방문회에 입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언니는 제 이름과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이름을 택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1888년에 데레사는 열다섯 살이었으며 가르멜 수녀원에 막 입회하려고 했을 때였다. 그 누구도 데레사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왜냐하면 데레사는 건강했으며, 수련자였을 때 찍은 여러 장의 사진을 통해 명량해 보이는 둥근 얼굴의 앳된 시골 소녀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915년 데레사에 대한 사도적 소송절차 중에, 레오니는 폴린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다음과 같이 자세히 진술했다.

원장인 곤자가의 마리 어머니는 데

레사에게 서원하는 날(1890년 9월 8일) 옆드렸을 때, 우리 아버지를 치유시켜 달라고 기도해야만 한다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데레사는 사실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느님, 마리 어머니(원장 수녀)가 저한테 당신께 이렇게 청하라고 해서 (말씀드려요.) 아빠를 낫게 해주세요. 아빠가 낫는 것이 당신 뜻이라면 말이에요. 그렇지만 레오니 언니가 방문회 수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허락해주세요. 그리고 만약 레오니 언니가 성소가 없다면, 언니에게 성소 하나를 보내주시라고 당신께 청해요. 이런 청은 당신께서 거절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정말 이런 일이 있고 난 뒤에, 전 방문회에 합류하려고 또 다른 시도를 했고 결실을 맺지 못했지요. 하지만 하느님의 종의 그러한 믿음은 계속해서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한 소송절차에서, 레오니는 또한 다른 때에 데레사가 성심의 마리 수녀에게 어떻게 말했었는지 진술했다. “내가 죽은 후에, 난 레오니 언니가 방문회에 다시 입회하게끔 할 거야. 그러면 이번엔 레오니 언니가 견뎌내겠지.”

4. 레오니의 영원한 가정

성공적인 시도

1899년 1월 28일, 레오니는 강의 방문회 수녀원에 세 번째로 입회했다. 이번에는 좋았다. 레오니는 겸손, 단순함, 자아 포기, 사랑으로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의 규칙을 살고자 했다. 레오니는 일찍이 방문회의 거룩한 창립자인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 곧 “사보이지앙”이라 불리기를 선호했던 그분이 잔 드 샹탈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적어주었다고 알고 있었다. “작고 보잘것없는 덕행들의 낮은 골짜기를 걸어갑시다.”

레오니는 또한 성인이 한번은 당신에게 고해한 어떤 수녀에게 “정말로 작은 소녀, 제 말은, 당신 눈으로 보기에 아주 작게” 되라고 충고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보잘것없는 업적에도 만족하십니다”라는 말로 다른 “영적인 딸들”을 위로해주었다. 익살스럽게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다. “우리 주님께선 책략가들이 당신을 섬기길 바라지 않으시지요!” 자기 자신을 “고통받는 이들의 열성당원”이라고 일컬은 프란치스코 드 살 성인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딸들”을 원했다.

방문회에 재입회한 지 며칠 후, 레오니가 세 명의 가르멜 자매들에게 보낸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받았던 첫인상이 어떠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수도생활이 시작되었지. 어제 난 결연한 마음으로 수련소로 걸어 들어갔어.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올바른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말이지. 오, 난 정말 행복해! 하느님께서 나를 지도하는 분들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속에서 부어주신 그 엄청난 배려심을 언니 동생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보다 더 진실하거나 혹은 더 깊은 애정이 있을까 싶어. 왜냐하면 그러한 애정은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거든.

난 입회했을 때, 약간 불안했어. 하

지만 믿음만은 충만했지. 사랑하는 원장 수녀님 품속에 안기고 나서, 내가 했던 처음 몇 마디는 바로 “제가 이곳을 떠날 땐, 관 속에 있게 될 거예요”였지. 그리고 나서, 얼마 동안 성체 앞에 머물렀어. 내가 비록 그분 앞에서 침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선 날 이해해주셨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 그리고 그 때문에 난 깊은 평화를 체험할 수 있었던 거야.

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노력하게 만드는 그런 용기를 통해 우리의 작은 데레사가 늘 내 곁에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 얼마 전에 원장 수녀님이 나한테 다음과 같은 말을 해주었지. “두려워하지 말아요. 기다리면서 바라보세요.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 성장할 테니까요.” 원장 수녀님의 예언이 이 편지에 실현된 거야. 난 날 필요로 하는 모든 희생을 행할 준비가 되어있어. 내가 정말 작고 너무 나약한 바로 그 순간에 말이지! 난 성장하면서도 동시에 작게 머물고 싶어.

사랑하는 수련소 자매들은 나한테 정말 잘해줘. 난 이미 그 자매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고 있지. 우리의 작은 수련소는 검은 머릿수건을 착용한 두 명의 서원자, 한 명의 가대 수련자와 두 명의 평수녀로 구성되어 있지. 오로지 나만 청원자야. 하지만 난 머지않아 동료가 생길 거라 희망해.

신임 원장 수녀는 전임자에 비해 덜 엄격했다. 그럼으로써 레오니는, 다른 나이 많은 동료 수녀들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서 다시금 수도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 것처럼 이전과는 달라진 유연한 분위기로 말미암아 1893년과 1894년에

레오니와 함께 방문회 수녀원에서 지냈던 데레사 푸게올이 1901년에 방문회에 재입회하게 되었던 것이다.

데레사, “나의 이상”

수녀원 수방에서, 레오니는 자주, 그리고 매 순간 동일한 기쁨으로 데레사의 『한 영혼 이야기』를 읽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읽으며 다정하면서도 사랑스러웠던 작은 동생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감동받았다. “사랑하는 작은 레오니 언니 역시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언니는 저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가족들 전부 산책하러 외출했던 매일 저녁마다 저를 돌보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레오니 언니였거든요. 아직까지도 전 레오니 언니가 절 재우기 위해 불러주었던 감미로운 노래들을 들을 수 있어요. 언니는 무엇이든지 간에 저를 행복하게 해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랬기 때문에 만약 제가 레오니 언니를 언짢게 했다면 전 괴로워했겠지요. 전 레오니 언니의 첫 영성체 예식을, 무엇보다도 언니가 저를 들어 올려 안은 채 사제관으로 데리고 갔던 순간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저처럼 온통 순백으로 옷을 차려입은 성장한 언니에게 안겨 있었다는 것이 정말이지 너무 멋졌던 것 같아요!”

레오니는 『한 영혼 이야기』의 처음 몇 장을 읽고서는 미소를 머금었다. 데레사가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 곧 레오니가 자기가 너무 커버려서 더 이상 인형을 가지고 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그 순간을 떠올렸을 때 (레오니는 그렇게 미소를 머금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인형 옷들과 소량의 물건을 가득 채운 채, 맨 위에다 자기 인형을 올려놓은 바구니를 들고서는 두 명의

어린 동생들에게로 갔다. 이따금씩 마르탱 씨가 불렀던 것처럼, “친절한 레오니”는 바구니를 두 동생들에게 내밀고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 어린 동생들, 골라봐. 전부 너희거야.” 셸린은 노끈 한 묶음을 골랐는데, 데레사는 손을 내밀어 바구니를 통째로 잡고서는, “난 전부 고를 거야!” 라고 외쳤던 것이다.

또한 데레사의 자서전에는 데레사가 열 살 때 걸렸던 심각한 질병에 대한 기억이 포함되어 있다. “레오니 언니 나에게 정말 잘해주었고 나를 즐겁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서전을 읽으면서 레오니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모두 떠올렸다. 레오니는 자신이 잊고 있었던 것들이 『한 영혼 이야기』의 여러 페이지들 속에서 완벽하게 복구되어 있음을 발견하면서 회상하게 되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다음과 같이 적었다. “전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데레사는 저보다는 더 나이 많은 언니들에게 훨씬 더 마음을 터놓았어요. 그 언니들은 데레사에겐 어머니나 마찬가지로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레오니는 (자서전을) 읽으면서, 자기 눈앞에 펼쳐진 데레사의 영혼의 일생을 관조했다. 자서전을 통해 레오니는 데레사의 생애에 있어서 어떤 의혹도 남아 있지 않은 수많은 세세한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이다. 레오니는 “어린 여동생의 영웅적인 자질이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르렀는지”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했었다.

언니 동생들의 애정 어린 도움

레오니의 언니 동생들은 편지를 통해 레오니가 작은 데레사에게 전념하게끔 해주었

다. 폴린은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약함으로 인해 슬픔에 빠져버리는 위험에 대해 설명하려고 애쓰면서, 데레사의 모범을 따르도록 조언했다. 1899년 3월 21일에, 폴린은 레오니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동생, 오늘 아침에 내가 얼마나 널 위해 성령께 기도했었는지, 수도생활의 수만 가지 투쟁들 속에서 널 도와주시라고 얼마나 그분께 간청했는지 알았으면 해! 하지만 애, 너도 알다시피, 우리가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에) 걸려 넘어져 흉하게 엎어져버리는 걸 각오해야만 하지. 만약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래서 “아, 내가 진보하고 있구나! 내가 그렇고 그런 덕을 얻었구나!” 하고 혼잣말할 수 있다면, 우린 의기양양해지고 말 거야. 레오니, 오로지 한 가지 덕, 곧 겸손만 찾도록 해. 겸손하다면 우린 우리 자신의 약함에 절대로 놀라지 않을 거야. 늘 선의 실천을 바라도록 하자. 우리 하느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자꾸나. 그리고 우리 천사(데레사)와 함께 다음과 같이 노래하도록 하자.

나의 평화는 작은이로 머무는 것.
그러면, 내가 도중에 쓰러질 때,
난 나 자신을
재빨리 일으켜 세울 수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선 날 손 잡아주시고요.

만약 우릴 손 잡아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릴 위로해주지 않으신다면, 만약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면, 만약 우리가 슬픔 말고는 그 어떤 것도 보거나 느낄 수 없다면, 그때 우리 다시 노래하자꾸나. (다음과 같이 말이야.)

파아란 하늘이 어둑어둑해지고
그분께선 날 저버리신 것 같이 느껴질 때,
나의 기쁨은 어두운 그늘 속에 머무는 것.
숨은 채로, 겸손하게 되어서.
나의 평화는 거룩하신 뜻에 있지요.
유일한 나의 사랑 예수님 (뜻 안에).
그러기에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대낮만큼이나 밤을
많이 사랑하니까요.

나의 작은 레오니, 대낮만큼이나 밤을 많이, 빛만큼이나 어두운 그늘을 많이 사랑하고 있지? 만약에 우리가 우리 천사를 훌륭하게 여기고 조금이라도 그 애처럼 되고 싶다면, 우린 그렇게 거룩한 이탈에 도달해야만 할 거야

이러한 시 구절은 일곱 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나의 기쁨!” 이라는 시의 한 연에 해당하는데, 그 시는 데레사가 1897년 1월 21일에 폴린의 영명축일을 위해서 지었던 것이다. 이후, 폴린은 그 시 전체 사본을 레오니에게 보내주었다. 바로 그러한 시의 사본이 레오니가 세상을 떠난 후에 다른 여러 문서와 편지와 더불어 그녀의 수방 책상 위에서 발견되었던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 옹달샘 *

영성체

박종인(예수의 라이문도) 신부/ 인천 수도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탈출 16장) 엘리야 예언자는 호렙산(시나이산)을 향해서 밤낮 40일 동안 걸어갈 때 하느님께서 천사를 시켜 내려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며 힘을 얻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1열왕 19,5-8 참조)

우리는 천상 고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이며 순례자입니다. 빠찌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께서는 “인생에 있어서 지상생애란 천상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귀환(歸還, Ritorno)” 이라 하였습니다. 이 귀향길에서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체성사(聖體聖事)를 세우셨습니다. (마태 26, 26-28; 마르 14, 12-16; 루카 22, 7-23; 1코린 11, 23-25 참조)

성체성사를 알려면 미사성체를 알아야 합니다. 미사성제는 하느님께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제사에는 제관과 제물이 있어야 하는데, 갈바리아 동산의 피흘림 있는 제사 때, 제관(祭官)도 예수님이시고 제물(祭物)도 예수님이십니다.

갈바리아 동산의 피흘림 있으신 십자가상 제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미사성제입니다. 미사성제 때 월계관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사제는 직무적으로 예수님을 대행하는 제관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의 사제들이며 거룩한 겨레이고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1베드 2.9) 그러므로 ‘미사 보러’ 간다는

말보다는 미사에 참례하거나, 미사를 드리러 간다고 해야 옳은 것입니다.

피흘림 없으신 제사인 미사성제 때, 제물이신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피흘림 있으신 십자가상 제사 때처럼, 이때도 제관과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제병과 포도주는 아직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가톨릭 사제는 성품성사로 서품될 때 빵과 포도주를 성체와 성혈로 축성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미사성제 중에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 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해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사제의 말씀으로 빵(제병)은 예수님의 성체(聖體)로, 포도주는 성혈(聖血)로 실체변화(實體變化)됩니다. 실체변화된 성체와 성혈 안에는 참으로(vere), 실제로(realiter), 실체적으로(substantialiter) 예수님께서 현존하십니다.

우리는 영성체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받아 모십니다. 이때 “과거의 사실을 우리 자신 안에서 그려보는(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현재 진행되는 일이며 오롯한 현실이어서 주님을 찾으려고 다른 먼 데로 갈 필요 없이 빵의 허울이 우리 육체의 열로 없어지기까지 그동안은 졸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이것을 알고 당신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완덕의 길 34장 8절)라고 우리 사모 데레사 성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자신이 “생명의 빵” (요한 6, 15; 6, 48),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 (요한 9, 51)이라 하시면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곧 나의 살이다” (요한 6, 5)라고 하셨습니다.*

* 자서전 연구 *

성녀 데레사의 『자서전』 해설 (36)

토마스 알바레스 지음

윤주현(십자가의 베네딕토) 신부 옮김 / 인천 수도원

제27장 절정의 체험: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삼위일체에 대한 첫 번째 체험

성녀의 감정적 폭발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에 대한 언급

이제 『자서전』 이야기는 1560년에 이른다. 당시 성녀는 45살이었다. 본 장에서는 바로 앞 장에서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사안이 다뤄지고 있다. 하나는 로망스어로 된 책들에 대한 종교 재판소의 압수로 인해 촉발된 일, 즉 책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녀가 아직은 어떻게 실현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살아있는 책’(libro vivo)에 대한 신비스러운 약속이 그것이다. 이제, 책에 대한 호소에 대한 문제는 완전히 부수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있다. 성녀는 더 이상 책에 의지하지 않은 채 글을 쓰고 여정을 걸었다. 성녀는 책에 대해 전혀 아쉬워하지 않는 듯이 보인다. 성녀는 체험을 바탕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살아있는 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보면, 이 약속은 차고 넘치도록 아주 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면에서 이는 성녀에게 상당히 당혹스러웠으며, 이 체험을 나눈 여러 영적 지도자들 역시 적잖이 당혹스러웠다. 이는 성녀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은총으로, 장차 성녀의 생애에 있어 걸어가게 될 길을 결정 지었다.

성녀는 본 장의 전반부에서 이 은총에

대해 전한 다음, 하느님과 자신 또는 독자 사이를 오가며 밀도 깊은 감정을 쏟아냈다. 이어서 성녀는 자신이 선호한 독자인 틀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와 더불어 다시 대화를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체험이 내포한 그리스도론적인 특징을 보장해 준 어느 신비가를 상기했다. 그는 다음 아년 알칸타라의 베드로(Pedro de Alcántara)²⁾

2) 프란치스코회 소속 수도자로 그 회의 개혁가이자 영성 저술가이기도 하다. 성녀 데레사와 각별한 우정을 나눴으며 성녀의 맨빌 가르멜 수녀원 창립을 결정적으로 도운 인물이기도 하다. 성녀는 그의 드높은 영성과 그가 행한 철저한 고행에 대해 자 28,17-18에서 자세히 전한 바 있다. 그는 1499년 카세레스(Cáceres) 근교의 일칸타라(Alcántara)에서 태어나 1562년 10월 18일 아빌라 근교에 있는 아레나스(Arenas)의 친구 집에서 임종했다. 그의 속명은 사나브리아의 후안 가라비토(Juan Garavito de Sanabria)로 그의 부친인 돈 일론소 가라비토는 일칸타라의 시장이며 어머니는 사나브리아의 마리아 빌렐라이다. 그는 성녀가 태어난 해인 1515년 프란치스코 수도회에 입회해서 1516년 ‘베드로’라는 수도명으로 서원을 발했다. 1532년에는 바다호스 지방의 라파의 성 오노프레 수도원의 원장으로 1538년부터는 관구장으로 봉직했다. 임기 중에 포르투갈과 로마를 여러 번 여행했다. 1541년에는 바르셀로나에서 그 시절 아직 세속인으로 있던 보르하의 성 프란치스코와 우정을 맺었다. 1556년에는 리스본에서 『기도와 묵상에 대한 논술』이라는 영성 서적을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말년에 아빌라에서 성녀 데레사를 만나 성녀를 영적으로 지도하며 좋은 영적 우정을 맺었다(자 35,5). 임종 후 약 100년 후인 1669년에 시성됐다.

그가 성녀 데레사와 인연을 맺은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1560-1562년) 그 관계는 깊었고 성녀의 영적 여정과 맨빌 가르멜 창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성녀의 작품에는 관련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자칫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서 그들의 이름을 대부분 익명으로 처리했다. 그 가운데 소수만 실명을 거론하며 소개했는데 일칸타라의 베드로도 그 중 한 사람이다. 두 사람이 처음 인연을 맺게 된 것은(1560년 8월) 두 사람과 친분이 있던 우요아의 기오마르 부인 덕분이었다. 이 만

수사였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자들”(3절)도 성녀의 체험을 보증해 주었다. 본 장의 전체적인 윤곽은 다음과 같다.

- 1~5절: 현존하시는 그리스도. 안정적인 체험
- 6~10절: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됨
- 11~15절: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에 대

남은 당시 붓물처럼 터져 나오던 신비체험을 식별하는 데 있어 성녀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성녀는 첫 만남부터 그를 “거룩하고 지극히 영적인 분”(자 27,3)으로 소개했다. 성녀는 그를 깊이 신뢰했으며 자기 영혼의 모든 사정을 밝히 드러내고 지도를 받았으며 창립과 관련해서도 조언을 받았다. 성녀는 자 27,17-20에서 그의 생애에 대해 간략하게 그러나 지극한 존경과 찬사를 담아 소개했다.

성 요셉 수녀원 창립 당시 성녀는 창립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안을 써서 그에게 보고한 일이 있었다(자 32,13). 당시 성녀가 직면한 어려움 중의 하나는 아빌라의 주교인 돈 일바로가 창립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데 있었다. 성녀로부터 그 상황을 전달 받은 베드로 신부는 직접 일바로 주교를 찾아가 창립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그를 설득함으로써 장차 일바로 주교가 창립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될 수 있도록 중재해 주었다. 베드로 신부는 임종 후에도 성녀의 현시 중에 나타나 수녀원 창립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성 요셉 수녀원을 연금 없이 창립하려 하자 아빌라 시의회 의원들의 대대적인 반대를 받은 성녀는 한참 고심하던 차였다. 이 와중에 성녀의 현시에 베드로 신부가 나타나 창립 과정에서 큰 반대를 받는 것은 오히려 질된 일이며 결코 연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재삼 강조했다고 한다. 성녀는 그 후에도 베드로 신부를 여러 번 현시 가운데 목격했다(자 36,20).

성녀는 영적 지도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그가 쓴 작품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다: “그분은 기도를 다룬 자그마한 책 몇 권을 로망스어로 쓰셨는데, 그것은 지금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기 체험을 토대로 이 수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쓰셨던 것입니다”(자 30,2; 창 28,41). 성녀는 회헌 2,7에서 수녀들에게 그의 작품들을 읽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또한 15년 후 『영혼의 성』을 쓸 당시 수동적 거동 기도에서 지성과 의지 사이의 상반된 작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알칸타라의 베드로 신부가 쓴 작품의 권위를 빌리기도 했다(4궁 3,4). 마지막으로, 성녀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묘한 기쁨을 누리는 영혼은 침묵할 수 없다고 하며 그런 영혼은 성 프란치스코처럼 큰 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선상에서 알칸타라의 베드로 신부를 언급하며 그가 성 프란치스코처럼 하느님 사랑에 미친 사람이고 그렇게 큰 소리로 주님을 찬미하곤 했다(6궁 6,11)고 전했다(Tomás Álvarez, “Pedro de Alcantara” en *Diccionario de Santa Teresa*, [dir. Tomás Álvarez], Ed. Monte Carmelo, Burgos, 2002, 694-695).

한 상기

- 21절: 후기, 틀레도의 가르시아 신부에게

1. 성녀의 자전적 자료: 외적 자료에서 내적 자료로

본 장에서 소개되는 성녀의 자전적 이야기는 점차 다양한 외적인 일화에서 거대한 내적 사건으로 옮겨갔다. 본 장에서 깊은 체험의 영역을 향한 이러한 이전(移轉)은 결정적인 진보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외적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일화들을 전해주는 보고는 최소한으로 드러난다. 저자인 성녀는 신비 현상에 저항했던 지난 2년의 세월을 다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신비 현상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던 5인조는 무대에서 거의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다만 고해 사제에 대한 암시만 남아 있다. 왜냐하면, 고해 사제는 근본적으로 이 신비적인 사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저항에 대한 저항, 영적 지도자 앞에 선 성녀의 저항이 더 우세하게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성녀는 어린 시절의 신심 행사로 도피했다. “저는 9일 기도를 거듭 드렸고...”(1절) 또한, 성녀는 대중적으로 악마에 맞서 싸우는 성인들로 인식된 성 힐라리우스와 대천사 성 미카엘에게도 도움을 청했다. 그밖에도 성녀가 도움을 청한 여러 성인이 더 있겠지만, 그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성녀 데레사 개인과 관련된 2가지 사실을 접하게 된다. 하나는, 성녀가 새로운 신비 체험에 직면해서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성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처음에는 커다란 공포감에 질려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2절). 또한, 성녀는 글을 써 내려가며 자신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얼굴을 붉혔다. “정말이지 부끄럽습니다. 만약 천국

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누구보다도 제일 부끄러워할 겁니다”(13절). 성녀는 자신이 감정에 복받쳐서 헛소리를 지껄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성녀는 글을 써 내려가면서 일종의 쉼과 위로를 얻었다. 그래서 본 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성녀의 고백은 진실하다. “비록 (글을 쓰는 것이) 고달프기만 하지만, 제게는 그런 사정을 쓰는 게 위안이 됩니다. 제가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제게 반대되기 때문입니다”(21절).

우리는 내적인 차원에서 성녀 데레사에게 일어나는 것과 절대적인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된다. 성녀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억누를 수도 없고 성녀를 당황스럽게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것은 그 심오함과 전대미문의 특징으로 인해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어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 친히 성녀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다. 정확히 말해, 그분은 성녀의 오른편에 계셨다. 성녀는 육신의 눈이나 영혼의 눈으로 그분을 본 게 아니다. 그러나 성녀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그분이 그곳에 계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그렇다고 그분의 활동 속에서 또는 그분의 현존에서 뿜어나오는 어떤 광채를 바탕으로 그분을 감지한 것은 아니다. 성녀는 그분 자신이 현존해 계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불꽃이 튀기는 순간처럼 극히 짧은 순간에 이루어진 현존이 아니라 성녀 데레사의 실존적인 집에 안정되게 안착한 현존이다. 이는 성녀의 관심을 온통 집중시켰고 성녀를 가득 채웠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제 옆에 거닐고 계신 것으로 생각했으나 상상적 현시가 아니어서 어떤 모습인지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줄곧 제 오른편에 계신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하는 모든 것에 대한 증인이십니다”(2절).

이러한 내적 상태는 고해신부와 반복해

서 대화하는 동안 연장되어 드러났다. 성녀의 이야기를 들은 고해신부 역시 처음에는 당혹스러워하며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성녀의 자전적 이야기에서는 더 이상 또 다른 에피소드나 심층 심리학적 차원으로 관심이 바뀌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성녀의 실존에 새로운 차원이 시작되는 것이 중요했다. 이제 연대기적인 관점에서 초월적인 관점으로 관심이 바뀌고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이제 『자서전』의 이야기는 그 의미와 내용이 바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후에 일어나는 신비적인 사실들은 경험적인 내용을 간직하고 있으며, 성녀는 이를 계속해서 보증했다.

2. 일어난 일들에 대한 반성: 그리스도론적 사실

성녀 데레사는 본 장의 전반부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려 노력했으며 이를 통해 자신의 영적 조연자들을 이해시키려 했다. 이 경우, 영적 조연자들은 3명이다. 우선, 그의 고해신부인 예수회원 발타사르 알바레스 신부를 들 수 있다. 당시 그는 27살로, 소극적으로 검열관 역할을 했지만, 그럼에도 공명정대하고 성실했다. 다른 한 사람은 프란치스코 회원으로 알칸타라의 베드로 수사이다. 당시 그는 65살로, 성녀가 체험한 것은 높은 경지의 신비적 은총임을 성녀에게 보장해 준 인물로, 많은 체험을 한 신부였다. 세 번째 인물로, 도미니코 회원인 틀레도의 가르시아 신부를 들 수 있다. 당시 그는 45살로, 성녀는 그에게 그간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그 일이 있는 지 5년 후인 지금 신비 교육적 의도를 갖고 그에게 자신의 신비 체험을 설명하는 가운데 그를 위해 본 장을 썼다. 성녀는 그리스도론적인 사실에 대한 풍부한 설명에서 다음과 같은 3가지 내용을 구

별했다.

- a) 자신의 실존적이고 의식적인 공간에서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성녀는 그분을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했다)
- b) 성녀 데레사와 예수 그리스도, 이 둘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소통: 내적 말씀들이라는 새로운 ‘언어’
- c)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에서 시작해서 삼위일체의 신비에 대한 체험으로 이어짐 (첫 번째 언급: 9절).

여기서 마지막 내용은 간단히 언급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는 앞의 두 내용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다루기로 하겠다.

- a) 현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겪은 새로운 체험이라는 유례가 드문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성녀가 기울인 엄청난 노력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음의 3가지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 “그분을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성녀 데레사는 자신 곁에 현존해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눈이나 영혼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육신의 눈으로도 영혼의 눈으로도 무엇을 본 것은 아니니 말입니다”[2절]; “주님을 육안으로도 영혼의 눈으로도 보지 못한다고 하면...”[3절]). 성녀가 본 것은 어떤 모습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곽이 뚜렷한 이미지도 아니며 여러 가지 감각들(시각, 청각, 촉각)을 바탕으로 도달할 수 있는 육신도 아니다. 단지 살아계신 어떤 분(“살아계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낀 것이다. 이는 성녀의 모든 활동이나 개입과 별개로 삶 가운데 자리 잡은 현존을 말한다. 성녀는 이것이 어떤 기능적인 현시가 아니라 “본질적인 현시”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에서 영으로 이어지는 지

각(知覺)이 아닐까?

- “확실하게” “분명히 그분을 봅니다”: 이러한 지각의 명료함은 여기서 적어도 8번 정도 분명하게 표현되고 있다. “그분께서 줄곧 제 오른쪽에 계시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2절),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겠고 또한 느끼며...”(3절), “저는 그것을 분명히 알겠고 또한 느끼며...”(3절), “주님은 당신 현존을 태양보다도 더 밝게 알려십니다”, “저는 태양이나 밝음이 아니라 빛을 보지 않으면서도 지성을 비추는 빛을 본다고 말합니다”(3절. 참조. 4-5절). 달리 말해, 여기에는 어떠한 모호함도 대략적인 추정도 없다. 오히려 그분의 현존은 성녀에게 명석한 체험으로 드러난다. 그분은 성녀의 오른쪽에 계셨다.
- 그 현존은 생명과 사랑의 행위이다: 성녀는 좀 더 뒤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현시는 상당히 지적이고 미적인 내용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리스도를 뵈는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님의 아름다운 인상을 제게 남겼으며, 지금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자 37, 4]). 그러나 이 현시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사랑의 행위로 일어난다. 그리스도와 성녀 데레사는 서로 “친교를 나누고 있다.” “이때 영혼은 자신의 노력은 조금도 없는데 이렇듯이 큰 보물을 소유할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비밀을 밝혀 주시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정과 애정을 드러내시는 분 외엔 다른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9절) 된다. “우리는 그 영문을 모르나, 이 두 애인은 서로 눈을 마주하여 바라봅니다”(10절).

성녀 데레사는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거의 언제나 상징적인 언어에 호소했다. (7쪽으로)

*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와 해설 *



성녀 카타리나에게

A Santa Catalina Mártir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오 영원하신 천주님을
지극히 사랑한 분이여
반짝이는 별님
우리를 도와주시라

나이 어려서부터
신랑님 모시고
그 사랑 간절하여
살 줄을 모르시니
겁 많은 사람
목숨 아까워
님 위한 죽음 꺼리느니
그대 따르지 못하리

겁쟁이들아
저 남자를 보라
황금도 미모도
아랑곳 없이
박해의 전쟁에
뛰어들어
도량(度量) 큰 맘으로
참아내누나

오히려 고통은
님 없이 사는 것
형(刑)을 받으며도
마음은 고요하니
모두가 즐거울 뿐

¡Oh gran amadora
del Eterno Dios;
estrella luciente,
amparadnos vos!

Desde tierna edad
tomastes Esposo;
fue tanto el amor,
que no os dio reposo.
Quien es temeroso,
no se llegue a vos,
si estima la vida
y el morir por vos.

Mirad los cobardes
aquesta doncella,
que no estima el oro
ni verse tan bella:
metida en la guerra
de persecución,
para padecer
con gran corazón.

Más pena le da
vivir sin su Esposo,
y así en los tormentos
hallaba reposo:
todo le es gozoso,

죽는 것이 소원이라
살아서는 살 수가
없는 탓이었어라

querría ya morir,
pues que con la vida
no puede vivir.

우리 그의 즐거움을
즐기고 싶다면
안식을 얻는 일에
싫증이 전혀 없으리라
아 넘어가는 속임수야
사랑 없이 이 어인 짓고
고통으로 살면서도
낮기를 바라다니

Las que pretendemos
gozar de su gozo,
nunca nos cansemos,
por hallar reposo.
¡Oh engaño engañoso,
y qué sin amor,
es querer sanar,
viviendo el dolor!

< 해설 >

이번 달에도 성녀 데레사가 쓴 헌시 한 편을 소개하는데, 최민순 신부님이 번역하신 원문에는 그냥 <성녀 카타리나에게> 라고만 되어 있지만, 스페인어 원문에는 <성녀 순교자 카타리나에게> 로 번역하셨으면 더 정확하였을 것이다. 독자들은 이미 짐작했을 것이지만 성녀가 이 시를 통해 그 성덕과 용맹을 공경하는 성녀 카타리나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셨던 시대나 장소가 전혀 다른 분이시다.

성녀 데레사가 이 시에서 찬양하는 카타리나는 아직 그리스도교에 대한 박해가 끝나지 않은 4세기 초반 로마제국 시대에 아프리카 북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의 귀족 집안 출신으로, 가족과 주위의 친지들 몰래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하다가 발각되어 배교하라는 갖은 회유와 협박과 고문에도 굴복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동정녀로 순교한 이집트의 카타리나 성녀로 알려진 분으로, 현시대에도 우리가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이 가서 볼 수 있는 시나이산 기슭에 있는 <카타리나 수도원>에 이 성녀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고 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천사들이 성녀의 시신을 하룻밤 사이에 이곳으로 옮겼다고 전해 내려오는데, 전에는 우리 가르멜 고유전례 축일표에도 있었던 이 성녀의 축일은 11월 25일이다.

시에 대한 해설을 따로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특별히 어려운 말이 없지만, 둘째 연에 나오는 '신랑님' 은 우리 영혼의 천상 정배이신 예수님으로 알아들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 연에서 '이 어인 짓고' 라는 말은 '이 무슨 행동거지인가?' 로 풀이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이 시에 전반적으로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지상에서의 모든 고통은 달게 참아 받아야 하겠다' 는 성녀 데레사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다.*

* 서품 소감 *



부르심

허선형(어린양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 신부

찬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올 2월 11일에 사제 서품 받은 어린양의 마리 도미니코 사비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준비할 수 있었고, 서품 이후에 첫 미사도 무사히 마쳐가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제서품 즈음부터, 조금씩 진심으로 하느님께 고백하기 시작한 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었는데, 은총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하느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입니다. 저한테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느님 자체가 선하시기에, 그 선하심을 고백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하심이 이해가 되서가 아니라, 감사하면서, 선하심에 믿음으로 감사드리면서, 그 선하심이 제 눈앞에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이어서 요즘 많이 묵상하고 있는 것은, 어둠 안에서의 빛나는 파스카의 신비입니다. 내 주위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그리고 내가 외면하고 싶어 하는 내 어둠 안에서, 그 어둠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간절히 받아들이면서, 아버지께 이 무한한 선하심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서, 구원이 지금 조금씩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매일 우리가 듣는 감사송 안에 신앙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멘!!!

'처음부터 있어 온 것,
사도들이 들은 것,
그들의 눈으로 본 것,
그들이 살펴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생명이 죽어가던 제게도 오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게 오신 예수님은, 당신의 온 존재를 한 말씀에 담아 제 영혼 속에 심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저는 그 말씀을 외치셨을 때의 예수님을 알고 싶었고, 그 순간의 예수님의 마음으로 숨을 쉬고 싶었으며, 그 순간의 예수님을 나의 온 존재로 고백하고 싶었습니다. 점점 그 순간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졌고, 되고 싶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고, 모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갈망은 조금씩 더 분명해져 갔고 깊어져 갔습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이 되신 말씀께서 하신 '말' 이 언제나 그럴듯이, 이 말씀은 그분의 눈빛이고, 숨결이며, 심장의 떨림이면서, 온 존재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이 말씀에 닿으려고 한 발자국씩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아버지께 대한 간절한 마음, 그 한 가지가 가장 먼저 그리고, 분명하게 제 마음속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마치 그 간

절한 마음 안으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묵상하면서 또 깨닫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지 완전히 아시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을, 영광을 전하고 싶어서, 스스로 수난을 원하셔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제서품 성구도 선택하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예수님의 이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에 다 담겨있어서, 그리고 그림을 묵상하는데 이 구절을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큰 고민 없이 이 구절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7,24)

저도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고 그것을 기뻐하며 감격하고, 아버지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만을 제 삶으로, 눈으로, 입으로, 호흡으로, 온 존재로 말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길, 너와 함께 하시길,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주님께서 너와 함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간절한 사랑으로, 그분의 선하심을 굳게 믿으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달하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나약하고 믿을 수 없는 나 자신을 잘 알기에, 그리고 앞으로 더 알아갈

것이기에, 매 순간 더욱더 의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

제가 살면 살수록 마음속에 깊이 남는 성경의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이 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밋세바의 남편 우리야입니다. 성경에 몇 줄 나오지 않지만, 우리야를 볼 때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한 단어는 충성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누가 보든지 말든지, 첫째로, 하느님께 충성스러운 군인이었고, 이스라엘 왕국에게도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날까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을 보면서, 하늘 나라의 알려지지 않은 한 명의 충성스러운 군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전쟁터인 이 세상에서 죽는 날까지 충성스럽게 제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해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늘 그렇지만 자신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 기도를 청합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기도에 감사드리며, 이제 시작이기에, 앞으로도 기도해주시길 것을 더 간절히 청하고 싶습니다. 저는 순결한 마음으로 아버지만을 바라보는 것으로 이 은혜를 갚겠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어 저에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7,24)

아멘!!!*

* 선교 *

<문화 적응주의 선교>의 선구자 마태오 리치 신부의 생애 (中)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마태오 리치 신부는 새로 부임한 조경 총독 유절제(劉節齊)에게 조경 성당을 빼앗기고 쫓겨나서, 새로 중국에 파견돼 온 안토니오 드 알메이다(Antonio de Almeida 중국명 麥安東) 신부와 함께 1589년 8월 26일에 소주(韶州)의 남화사(南華寺)로 갔다. 그러나 남화사의 승려들은 서양에서 온 두 신부를 반기지 않았다. 그해에 프란체스코 데 페트리스(Francesco de Petris) 신부가 새로 와서 두 신부와 합류하게 되었고, 이듬해 그들은 광효사(光孝寺) 부근의 강변에 성당을 지어 축성하였다. 이어서 마태오 리치 신부는 소주에 초학원(初學院)을 설립하고, 최초로 중국인 청년 종명인(鍾鳴仁)과 황명사(黃明沙)를 청원자로 받아들였다.

1591년 1월 1일 그들은 정식으로 입회하여 최초의 중국인 입회자가 되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 곁에서 돕던 신부 중에서 알메이다 신부가 그해에 세상을 떠나고, 이어서 1593년에는 페트리스 신부도 세상을 떠났다. 두 신부의 유해는 모두 마카오로 운구되어 안장되었다. 이들 두 신부와 각별한 사이였던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들의 죽음에 몹시 비통해했다고 한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1589년에 처음 만나서 교류(交遊)한 사람은 문인이자 유학자인 구태소(瞿太素)였다. 구태소는 연금술을 배우려고 그를 찾아 왔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에게 서양 수학, 기하학, 역학, 측량술 등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쳐 입교하게 하였다. 마태

오 리치 신부는 구태소로부터 <사서>와 <오경>을 배워서 라틴어로 번역하기도 하였다. 구태소는 마태오 리치 신부의 학식과 인품을 존경하여 사방에 그를 늘 칭송하고 다녔다. 이는 당시 중국 사회에 마태오 신부의 평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구태소는 마태오 리치 신부에게 그동안 입고 다니던 불교 승복을 벗고 중국 사회의 지도층인 유학자들의 관습과 행동에 따라 유사(儒士)의 복장으로 바꾸어 입을 것을 권유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위에서 본 것처럼 중국 선교사 생활의 초기에는 불교 승복을 입고 선교 활동을 하다가, 그렇게 해서는 천주교를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국에서 천주교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유교와 중국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깊이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는 불교에 대해서는 반감을 불러 일으킬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에 섰지만, 유교에 대해서는 천주교 교리와 유사성 혹은 합일점을 찾고자 하였다.

1592년 봄, 갈(葛)씨 성을 가진 남웅(南雄)의 부유한 상인이 마태오 리치 신부를 청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1년간 남웅에 머물며 선교 활동을 하였다. 그해 12월에 발리라노 신부가 일본에서 마카오로 돌아왔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마카오로 가서 발리라노 신부를 만나 중국선교에 대해 협의하고 돌아왔다. 1595년 초여름에 마태오 리치 신부는 남창으로 갔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세계지도를 그려 황족(皇族)인

건안왕(建安王)에게 보냈는데, 이 지도에 한문(漢文)으로 지명을 적어 넣고 주석을 달았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남경(南京)으로 가서 사대부들에게 서양 천문학을 소개하였다. 그는 남경에서 <지구의>, <천지의>, <상한의(象限儀): 90도 눈금이 새겨져 있는 부채 모양의 천체 고도 측정기>, <기한의(紀限儀): 두 천체 간의 각도를 측정하는 천문 관측 기기> 등도 제작하였으며, 남경 계명산(鷄鳴山)의 북극각(北極閣)을 방문하고 중국의 고대 천문의기를 관람하기도 하였다. 남경 형부주사(刑部主事) 오좌해(吳左海)는 마태오 리치 신부가 그린 <산해여지전도>를 보고 너무 간단하다고 하면서, 지도를 좀 더 크게 그리고 더욱 상세한 설명을 넣어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산해여지전도>에다가 유럽에서 새로 입수한 자료를 찾고 보완하여 남양, 유럽, 아프리카를 수정하고, 중국 접경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朝鮮)을 추가로 그려 넣어 <산해여지전도>를 다시 제작하였다. 이 지도는 1600년에 남경에서 출판되었고, 중국의 학자들과 관리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았다. 이 지도는 중국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일본까지 전해졌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남경에 사는 초평(焦垞)과 저명한 사상가이자 문학가인 이지(李贄: 李卓吾)와도 사귀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1589년부터 1595년까지 소주에서 선교 활동을 하였다. 1594년 7월 7일에 라자리우스 카타네오(Lazarius Cattaneo 중국명 郭居靜) 신부가 소주에 왔다. 그는 1594년 동양순찰사 발리냐노 신부가, 중국의 선교사들이 불교의 승복을 벗고 유교 관습에 따라 사대부처럼 비단으로 된 유생복을 착용하는 것을 이미 공식적으로 승인한 사실을 알려주었다. 카타네오 신부는 마태오 리치 신부를

도와 선교 활동을 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루지에리 신부와 함께 중국 내지(內地)에 진입하기 위해 천신만고 노력 끝에 조경에 정착했는데, 지방관이 바뀌자 하루 아침에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마태오 리치 신부는 황제에게 정식으로 선교 허락을 얻어야 안심하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사대부처럼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황제에게 진공(珍貢)할 선물을 가지고 소주를 떠나 북경(北京)으로 향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카타네오 신부와 종명인 수사를 대동하고 북경으로 갔다. 그러나 당시에는 조선에서 임진왜란(1592~1596)과 정유재란(1597~1598)이 일어나 명나라 군이 조선군과 연합하여 일본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터여서 중국인들은 외국인들을 보면 간첩으로 오해하고 몹시 경계하였다. 결국 마태오 리치 신부 일행은 황제를 알현하지 못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왔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조선에서 전쟁이 끝난 후, 디에고 데 팜또하(Diego de Pantoja 중국명 龐溜我) 신부와 종명인 수사와 함께 황제를 만나러 다시 북경으로 갔다.

1601년 1월 27일, 마태오 리치 신부 일행은 명나라 황제 신종 만력제(1572~1620 제위)에게 소폭의 <그리스도상> 한 폭, 대폭의 <천주성모상> 한 폭, 금실로 장정한 <일과경> 한 권, 보석과 색유리로 된 <십자가> 한 좌, <만국여지도> 한 책, 추가 달린 큰 <자명종> 한 점, 도금한 작은 <자명종> 한 점, <능경: 프리즘> 두 개, <서양금: 클라비첸발로> 한 개, 거울 및 크고 작은 병들 몇 점, 코뿔소 뿔 한 개, <모래시계> 두 구, <복음서> 네 책, 유럽식 각색 요대 네 개, 유럽 의복 다섯 점, 유럽 은화 네 점등을 진공하였다. 그해 5월, 중국 황제는 마태오 리치 신부 일행에게 북경 거류를 묵허하였다. 마태오 신부 일행

이 황제에게 진공한 얼마 후 자명종이 고장 나자, 황제는 자명종을 진공한 서양 선교사를 궁중으로 불러들여 수리를 해야 하므로, 그들이 북경을 떠나지 못하게 명령이 내려졌던 것이다.

마태오 리치 신부 일행은 북경에 정착하게 되었으나 일정한 거주지가 없어 여러 차례 이사를 다녀야 했는데, 아직 그들은 성당과 사제관을 정식으로 마련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1605년 8월 17일, 그들은 서광계와 몇몇 은인들의 도움으로 북경에 예수회 선교사 전용 주거지를 마련하였다. 그들은 순천문(順天門) 부근에 어느 휴가를 구입하였는데, 마흔다섯 칸이나 되는 큰집이어서 일부는 숙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소성당으로 개조하였다. 북경에 정착한 마태오 리치 신부는 예부상서 풍기(馮琦)와 친밀하게 지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에게 예물로 <천문의>와 <지구의>, 그리고 돌로 만든 <해시계>를 보냈다. 1602년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지조의 요청에 따라 6쪽의 세계지도인 <곤여만국전도(坤輿萬國全圖)>를 그려 주었다. 이 지도는 북경에서 목판 인쇄로 출판하였는데 지금은 이지조가 보조해주었다. 이듬해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응시(李應試)와 완태원(完泰元)의 협조로 <곤여만국전도>를 확대 제작하여 8쪽짜리 세계지도 <양의현람도(兩儀玄覽圖)>를 출판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 전통적 지도 관념에 부합하기 위해 유럽 제도학(製圖學)에서 지켜온 중요한 전통을 바꾸었다. 세계지도를 그릴 때 유럽의 제도학에서는 본초자오선을 중앙에 위치하게 하는데, 마태오 리치 신부는 세계지도를 그릴 때 중국을 중앙에 놓고 그렸다. 중국인들은 자존자대(自尊自大)의 심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식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조선이 유럽에 알려진 것은 16세기 중엽 제도학자(製圖學者)들을 통해서였다. 왕반, 오중명, 이지조,

이응시 등과 같은 중국관리나 학자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지도를 출판하는 데 자금을 대주거나 직접 지도를 그리는 데까지 참여하였다. 이 지도들은 세상에 널리 유포되어 유통되었다. 1600년 남경에서 출판한 세계지도 <산해여지전도>는 4년 뒤에는 중국의 오지인 귀주성(貴州省)에까지 전해졌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1602년 <곤여만국전도>를 그린 후 사대부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의 위치도 상당히 높아졌다. 중국 지식인들은 마태오 리치 신부를 종교인, 수학자, 천문학자, 제도학자로 생각해서 존대해 주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북경에 온 후 두 가지 큰 발견을 했다. 하나는 유대인이 실제로 하남성 개봉(開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탈리아 여행가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東方見聞錄)>,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 나오는 거란(Khitán), 키타이(Kitay), 하타드(Hyatad) 등이 곧 중국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1605년 개봉에 사는 유대인 애전(艾田)씨가 마태오 리치 신부를 방문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를 보고 첫눈에 순수한 중국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를 성당에 데려가서 성상을 보여 주었다. 애전이 말하기를 개봉에 유대인이 10~12 가구 정도 살고 있다고 알려 주었다. 애전은 유대인들이 거기서 회당(會堂)도 지었다고 말하며, 5~6백 년 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는 다른 지역에도 유대인 회당이 여러 개 있다고 알려주었다. 3년 뒤에 마태오 리치 신부는 애전이 얘기한 대로 실제 유대인 회당이 있으며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고하였다. 후일 유대인 세 사람이 다시 마태오 리치 신부를 찾아 왔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들을 매우 반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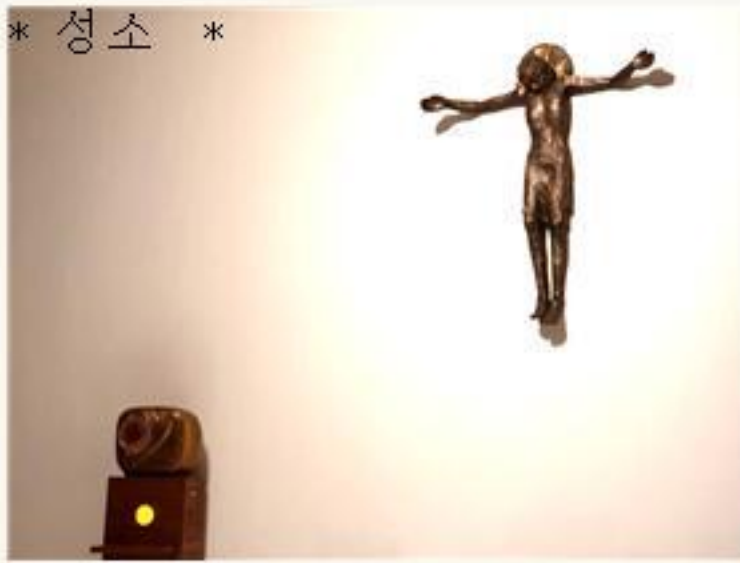
맞아들였다. 이 유대인들 중에 애전의 조카도 있었다. 그렇지만 이들은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남자 아이를 출산하면 생후 8일째 되는 날에 ‘할례(割禮)’라는 의식을 치르는데, 그것은 너무 잔인하고 야만스런 습속이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그들을 잘 인도하여 천주교에 입교하는 세례를 주었다.

1602년 10월 29일, 포르투갈 출신 베네딕도 데 고에스(Benedictus de Goes) 수사가 5백여 명의 대상을 따라 인도에서 출발하여 중국으로 올 준비를 하였다. 그들은 사마르칸트(Samarkand)를 경유하여 18,000 피트의 고원을 넘어 신강성 토노번(Turfan)에 왔다. 1605년 10월 17일, 고에스 수사는 합밀(哈密: Hami 신강 유오이 자치구 동쪽, 천산산맥 남쪽 기슭에 있는 오아시스 도시로 동서 교통의 요충지)에 도착했으며, 그해 성탄절에 감숙성 북서부의 숙주(肅州)에 도착했다. 고에스 수사는 마태오 리치 신부의 중국식 이름을 알지 못하여, 그가 보낸 첫 번째 서신은 마태오 리치 신부가 받지 못했다. 1606년 11월에 도착한 고에스 수사의 두 번째 서신을 받고 마태오 리치 신부는 대단히 기뻐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이제 스물다섯 살이 된 중국인 수사 종명례(요한)를 숙주에 파견하였다. 종명례 수사는 그해 12월 12일에 북경을 출발하여 석 달쯤 지난 1607년 3월 말에 숙주에 도착하였다. 고에스 수사는 여로에 지쳐 중병에 걸려 누워 있었다. 고에스 수사는 종명례 수사가 도착한 지 열흘만인 1607년 4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학술(學術) 선교활동을 하였다. 그런데 같은 예수회 선교사인 니콜라스 롱고바르디(Nicolas Longobardi 중국명 龍華民) 신부는 이런 선교 방식을 반대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가 대부분의 시간을 과학을 강의하는 데

보냈기 때문이다. 롱고바르디 신부는 광동성 소주에 있을 때도 과학 선교를 반대하였다. 그는 농촌 지역으로 가서 선교활동을 하였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합유(合儒), 보유(補儒), 초유(超儒), 부유(附儒) 등의 선교 방법으로 유가(儒家)에 적응하고, 보유역불(補儒易佛) 노선(路線)을 택했다. 즉 천주교 교리와 유학 사상 간에 부합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보완하며, 불교는 반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마태오 리치 신부는 선교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고려하여 그곳 상황에 맞추어 선교하는 문화적응주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며, 상류계층의 적극적 호응과 많은 개종자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마태오 리치 신부와 루지에리 신부는 1583년 조경에서 문화적응주의 방식을 채택하였다. 라틴어 ‘데우스(Deus)’라는 낱말의 의미를 ‘천주(天主)’로 번역하여 중국 유교 경전에 나오는 ‘천(天)’과 ‘상제(上帝)’가 같은 뜻이라고 풀이하였다. 이러한 마태오 리치 신부의 방식은 그가 지은 <천주실의(天主實義)> 서문에서 밝혔듯이, ‘중국을 빌려 중국을 변화하게’ 하는 방식으로 유교와 천주교가 이질적이지 않음을 설명해 줌으로써 중국인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오 리치 신부는 중국인들의 공자 숭배와 조상 숭배도 묵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1610년에 마태오 리치 신부가 세상을 떠나자, 롱고바르디 신부는 ‘천(天)’과 ‘상제(上帝)’는 조물주의 뜻이 아니며, ‘천(天)’은 단지 푸른 하늘일 뿐이고 ‘천(天)’과 ‘상제(上帝)’를 조물주의 뜻으로 쓰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였다.

(다음 호에 계속)



가르멜로(路) 74-54길

가르멜 남자 수도회 성소 위원회

편리함의 역설

어제 아침에 식사 마치고 화장실에 들렀다가 샤워기로 물을 틀었는데 이상하게도 평소와 다르게 수압이 너무 약했다. 그래서 교체한 지 얼마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옥상 물탱크로 물을 자동 공급하는 장치에 문제가 생겨서 물탱크에 차 있던 물이 부족해 수압이 약해진 건가 하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세면대 쪽 수압을 확인해보니 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샤워기 꼭지 부분을 돌려 안을 확인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꼭지 안쪽에 들어있는 자성을 띤 여과기 같은 부품에 지저분한 이물질이 진득하게 잔뜩 엉겨붙어있는 것이었다. 그 이물질을 바라보며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졌다. ‘아니~ 그동안 내가 이렇게 지저분한 샤워기로 머리 감고 샤워도 하고 그랬단 말이야!!!’

찔찔한 마음으로 그 지저분한 샤워기 속을 말끔히 청소하고 나니, 언제 그랬냐는 듯 샤워기가 물줄기를 정말 세차게 뿜어댔다. 문득 전에 사용했던 샤워기 생각이 났다. 그 샤워기는 투명해서 속이 다 들여다보였고, 뿜어대는 물줄기도 정말 부드러웠다. 하지만 어느 날 꼭지 부분이 부러지는 바람에 지금 사용하는 비슷한 성능의 샤워기를 구입했던 것이다. 그래도 나름 편리하게 사용했는데 속이 그렇게나 지저분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했다.

불현듯 ‘편리함의 역설’ 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편리함이라는 허울 좋은 환상에 가려져 있는 불편함, 수고로움’ 이라고나 할까! 곧 불편하거나 수고롭지 않으려고 편리함을 택했는데, 오히려 불편함, 수고로움이 부록으로 따라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비단 그런 상황은 앞에서 예를 들었던 사용하다보면 속이 지저분해져버리는 샤워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거의 수족처럼 사용하는 스마트 폰도 마찬가지이다.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다 보니, 아예 이젠 더 이상 없이 살기 힘든 필수품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편리함이라는 허울 아래,

수많은 시간 낭비와 눈의 피로, 때로는 그로 인한 수면부족에다가 다음 날 겪어야 하는 후유증까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혹독한 대가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편리하다고 계속 사용한다는 점이다. 정말 '편리함의 역설' 이 아닐 수 없다.

어쩌면 우리가 하느님께 나아가는 여정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싶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내심 어떻게 하면 더 쉽고, 더 효율적이며, 최대한 빠르게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길을 찾고 있는 것 아닐까?? 하지만 세상에 진짜 그런 길이 있을까??? 아무런 불편함이나 수고로움 같은 것 전혀 없는 그런 길 말이다. 그런 십자가 없는 부활의 영광이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

성 소문의 :010-2140-7414

facebook: 가르멜로(Carmelo)

instagram: reumelga



* 추모 *

안셀모 수사님을 기리며

김석영(예수 마리아의 요셉) 수사/ 한국 가르멜 대만 수도원

수사님, 평소의 수사님답지 않게 뭐가 그리도 바빠서 간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어찌 그렇게 황망히 가셨나요? 그저께 밤에 끝기도가 끝난 대침묵 시간에 원장님이 수방문을 두드리며 알려주신 수사님의 귀천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수사님은 이미 하늘나라에 계시니 모르시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서둘러 길을 떠나 마산 수도원에 갔을 때는 아직 오전이었는데, 당신은 이미 수도원 응접실에 놓인 큰 탁자 위에서 하얀 보를 쓰고 누워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거기서 혼자서 수사님을 지키고 있던 젊은 수사님이 무슨 바쁜 일이 있다면서 저한테 부탁하는 바람에 제가 숨을 돌릴 사이도 없이 혼자서 한 시간 가까이 당신과 함께 있는 동안, 수사님과 저 사이에 있었던 참으로 많은 추억들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우리가 처음 만난 것은 제가 아직 청원자이던 1978년 여름의 어느 날이라고 생각되는데, 당시 수도원에서는 처음으로 사게된 자동차인 미니버스를 정 신부님이 직접 자동차 공장이 있던 울산인지 포항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곳까지 가서 자동차를 출고하여 직접 몰고 올라오실 때 대구에 들려 당신을 태워 수도원에 오셔서 새로운 지원자라고 하시면서 한 청년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때 당신은 대학교 2학년의 풋풋하고 귀티 나는 얼굴로 미소지으며 상냥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련을 받던 이듬해 초에 수도원에 입회하여

몇 명의 다른 청원자들과 함께 두 시간 거리의 서울에 있는 신학교를 통학하면서 면학과 수도생활이라는 어렵고 어려운 두 가지 일을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흐르는 세월과 함께 공동생활에서 오는 갖가지 희로애락을 겪으며 한 단계 한 단계 거침없이 올라가면서 청원기, 수련기를 끝내고, 첫서원을 하고, 종신서원을 하기까지 무슨 직 무슨 직하는 단계를 거쳐 부제품을 받고 사제품을 받기까지 수사님이 겪은 숭한 어려움을 저는 잘 모르지만 당신은 아무 내색도 없이 잘 통과하더이다.



사제서품 25주년 축하식 답례 바흐 연주

그리고 얼마 후, 수사님은 스페인으로 유학을 가셨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인 1996년에 저도 종신서원 10주년 기념으로 받는 안식년을 맞이하여 그해 3월에 스페인에 가게 되었는데 수사님이 3년 전에 저보다 먼저 와서 밟고 있는 아빌라 국제 영성센터 코스를 저도 공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재속회원들과 함께 열흘 동안의 성지순례를 한 적이 있어 그때가 외국으로 처음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혼자서 가는 여행이라 제가 여간 긴장하고 들떴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마드리드 공항에서 수사님이 마중을 나와 주셔서 얼마나 반가웠던지요. 택시와 기차를 몇 번이나 번갈아 타고 도착한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생가 수도원에서 능숙한 스페인어로 많은 신부님들과 자연스레 대화하면서 저를 소개할 때 저는 얼마나 주눅이 들었고, 얼마나 수사님을 부러워하였는지 모를 것입니다. 며칠 동안 아빌라에 머무는 동안 시내의 여러 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스페인에서의 유학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자세히 알려주시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며칠 후에 제가 머물면서 앞으로 6개월간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로 정해진 스페인 북부의 나바라 관구의 소도시 깔라오라에 있는 수도원에 가기까지 8시간 동안 기차에서 서로 나눈 얘기들이 무엇이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마치 장성한 형이 어린 동생을 데리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나누었을 법한 얘기들이었습니다. 깔라오라 수도원에 도착하여 수도원 식구들에게 저를 부탁하며 그들과 유창하고 당당하게 대화하는 수사님의 모습은 저보다 아홉살이나 적었지만, 오히려 저에게는 그만큼 많은 형님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거기에 저를 혼자 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아빌라로 다시 떠나시는 수사님을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당신은 아셨는지요? 당신이 떠나신 뒤 허허벌판에 홀로 선 외로운 나무 한 그루처럼 막막했던 그 당시의 저의 심정을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훤히 아실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시간에 공동체 수사님들 앞에서 원장님이 저를 소개할 때, 지난 몇년간 교육 방송을 들으며 조금 배운 스페인 말로 떠들떠들 인사를 드리고, 다음 날

부터의 식사시간은 저에게 매번 당해야 하는 고문과 같은 시간이었지요. 대부분이 60대에서 80대의 노인들이라 정확하지도 않은 발음으로 빠르게 몇 마디씩 던지는 스페인 말들을 한두 단어도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 그날부터 매일 두 시간씩 수도원에 오셔서 저를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덕분에 조금씩 말문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낯선 타국 생활에 저도 적응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쯤 지난 후에 며칠 동안의 부활절 휴가를 맞아 저 혼자서 지난번에 왔던 길과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가는 기차를 갈아타기도 하면서 여덟 시간 후에 아빌라 수도원에서 공부하고 계신 수사님을 다시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는지요.

그날부터 며칠간 수사님과 함께 살라망까로 가서 거기 있는 수도원에 머물면서 시내의 여러 곳을 관광하던 때가 일생 동안 저와 수사님이 가장 친밀하게 지낸 날들이었을 것입니다. 몇 달 후에 어학연수기간이 끝나고 제가 아빌라 코스에 들어가기 위해 거기 갔을 때는 수사님은 석 달 전에 이미 그 코스를 끝낸 뒤 석사 코스를 밟기 위해 발렌시아로 가신 후였습니다. 수사님은 거기서 공부하면서 몇 달에 한번씩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데리고 마드리드의 여러 곳과 엘에스꼬리알의 궁전 등을 구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 년 후에 제가 로마에 있는 수도회 총본부로 일하러 갈 때 마드리드 공항까지 데려다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수사님이 스페인에 몇 년 동안 머물면서 공부하는 동안 저는 로마 총본부에서 전화 받고 청소하고 식당 정리 등을 하면서 있다가 3년 후에 귀국하고 얼마만큼 지난 뒤에 수사님도 유학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지만, 그동안 이미 몇 군데로 늘어난 공동

체로 인하여 각각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관구 전체 연피정이나 혹은 형제들의 종신서원이나 사제서품 같은 큰 행사가 있을 때나 잠깐씩 얼굴을 볼 정도가 되었지요.

어젯밤 마산 수도원 대성당의 돌제대 뒤에서 관 속에 누워 계신 수사님을 지키면서 한 시간가량 머무는 동안, 당신과 함께 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가르멜 남자수도원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되어 인천에 하나밖에 없던 초창기 15년 동안의 추억이 너무나 생생하였습니다. 형제들끼리 배구를 하다가 수사님이 실수해서 한 점 잃었을 때 어떤 선배 수사가 ‘고춧가루 좀 뿌리지 마!’ 하고 장난스레 야단치는 소리를 듣던 일, 어떤 특별한 날에 형제들이 함께하는 유희 시간에 당신한테 노래를 시키면 당신이 기타를 치면서 장난스레 웃는 얼굴로 자주 부르던 <그 애와 나랑은 비밀이 있었네...> 그 노래, 그리고 또 수도원 식당에서 어찌 다 밥이 아닌 특별한 음식이 나왔을 때, 맛있게 잘 드시고 난 뒤 웃으면서 투정하는 식으로 “밥도 안 주고...!” 하면서 언제나 반복되던 똑같이 멋쩍은 그 농담을 우리 형제들은 오래도록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 수사님은 제가 20년 가까이 주방을 담당하면서 간신히 시간 맞춰 준비해 낸 형편없는 반찬 솜씨에도 어떤 음식에 대해서 불평 한마디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저는 뚜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사님의 그 지독한 청빈의 정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수십 년이나 입어서 닳고 닳은 옷들을 몇 년 동안이나 외국 생활을 하면서도 버리지 않고 가지고 다니면서 꾸준히 입고 다니신 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사는 형제들을 좀 웃겨 보겠다고 시도하는 싱거운

개그에서 형제들이 웃기도 전에 자신이 먼저 웃어버리곤 하던 일을 이제는 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진정으로 서운합니다.

아직도 3년째나 계속되는 끔찍한 역병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광풍 속에, 그래도 계절 따라 꽃피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지만, 봄 같지 않은’ 엄혹한 상황에서도 장례미사 때 마산 수도원 대성당을 가득 메우고도 남을 정도로 많이 오신 조문객들의 눈물어린 기도소리를 들으며 제대 앞에 누워 계신 당신, 당신을 가르치신 스승과 당신이 가르치신 제자들이 함께 부르고 연주하는 장송곡을 어떤 마음으로 들으며 누워 계셨는지요? 남남끼리 만나서 40년이나 동고동락하며 함께 형제적 사랑을 나누며 살다가 갑자기 한마디 말도 없이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신 당신을 우리는 어떤 심정으로 보내드려야 할까요?



유골함(영원한 사랑의 길로...)

오늘 오후, 불과 두어 시간 만에 한 줌의 재로 변한 수사님의 유골함을 제가 안고, 자동차를 타고 휴대폰으로 모차르트의 레퀴엠(진혼곡)을 들으며 세 시간 후에 도착한 광주 수도원에서는 아직 마련하지 못한 장지의 사정 때문에, 본의 아니게 11일장이 되어 그동안 모셔 놓을 조출한 빈소는 수도원의 손님방이었는데, 유골함을 둘러싼

많은 꽃들이 진한 향기를 풍기는 중에, 여러 가지 개인 사정 때문에 마산 수도원에서 장례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몇몇 재속회원들이 당신을 보내려고 기다리고 계셨고 멀리 대구에서 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열흘 전까지 우리와 함께 생생히 살아계시던 당신의 몸은 이제 무기질인 한 줌의 재가 되어 저의 팔에 안겨서 수도원에서 묘지까지 가는 동안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상주 노릇을 제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당신이 잠깐 머물러 계신 손님방으로 가서 묵주기도로 <영광의 신비>를 바치면서 몸은 이미 지수화풍의 몇 가지 원소로 흩어져 대기 속에 떠돌고 있으리라 짐작하면서도, 당신의 고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수많은 천사와 성인성녀들과 함께 하느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무한한 영광과 사랑을 바라보고 찬미 노래 부르면서 계시리라 상상하면서, 갑자기 황망히 당신을 보내야 하는 우리의 상황과는 달리, 하느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세상에서 닦아야 할 덕을 이미 다 닦아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금 저로서는 모든 인생이 겪어야 하는 과정을 이제 다 끝내버린 수사님의 처지가 진심으로 부럽다고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가까이서 수사님을 영원히 보내드리려고 오신 많은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속에 불안식을 마치자마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묘지 주위를 춤추며 날아다니는 노랑나비 한 마리가 부활하신 당신 모습으로 느껴져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안셀모 수사님, 이젠 정말 수사님을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수사님이 스페인에 계실 때 제가 몇 번 본 일인데, 대개 우유를 섞은 커피 한 잔과 마른 빵 부스러기로 때우는 수도원 아침 식사시간에 수사님이 농담이랍시고 노

인 신부님들한테 건네던 “부에나스 노체스(Buenas Noches!)” 라는 인사말이 생각납니다. 수사님의 그 인사말을 들은 신부님들이 그건 아침에 하는 인사말이 아니고 밤에 잘 때 하는 인사말이라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면, 당신이 알아들었다는 듯이 몸짓을 하고 나서 다음 날도 또 그런 식으로 인사를 하여, 당신이 장난으로 그런 줄 알아차리면서 그냥 웃어넘기지 못하고 무시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이제 정말 영원히 당신을 보내드리는 이 마당에 제대로 인사를 하려면 “아디오스!(A Dios! - 안녕히!)” 라고 해야겠지만, 저도 그런 식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에르마노, 아스파 루에고!(Hermano, hasta luego!-수사님, 좀 있다가 또 봐요!)” *



* 회원의 글 *

그대도 오세요

박계용(예수 성심의 도미니카)/ 남가주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노을 고운 서녘 하늘에 초승달이 떠있습니다. 모과나무의 연분홍 꽃송이도 어둠에 묻힙니다. 초저녁에 뜨는 달은 초승달이라던 벗이 달빛 되어 내려다봅니다. 밤은 깊어가고 언니가 보낸 동영상과 사진 한 장이 숨어있었습니다. 세모시 옥색 치마, 바이올린 선율이 마중하는 화면엔 단아한 고향의 봄꽃들이 이어지고 자막엔 이채의 시가 흐릅니다.

찬서리 젖은 바람
몸을 말리거든
당신도 바람 따라오세요.

여리고 수줍은 꽃잎
햇살 고운 발길 머물거든
당신도 햇살 따라오세요.

꽃잎에 맺힌 이슬
마저 익으면
그리움의 눈물 뚝 떨어져요.

.....

우리가 만난 지도 벌써 여러 해가 지났다던 언니, 한번 다녀가라던 재촉 대신 오늘은 영상으로 띄운 무언의 메시지에 가슴이 멍멍해집니다. 돌 틈 사이 작은 삼색제비꽃 한 송이를 제 계정으로 옮기고, 까만 밤 초승달 사진 한 장과 짧은 답신을 보냅니다. “보고 또 보고, 삼색제비꽃 홀로 피어있는 저기가 어딜까... 꿈에라도 가봐야지.” 하지만, 아침에 보니 답신이 영뚱하게 저에게 달려있습니다. 아직 심신이

온전치 못한 모양입니다.

주말 오후, 고속도로 초입부터 정체가 심해 가다 서다 서행 중이었습니다. 겨우 한 구간도 이르지 못했는데 흰 물체가 벼락 치듯 운전석을 치고 튕겨 나갔습니다. 앞차를 박고 몇 바퀴를 돌던 밴은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분리대 시멘트 벽에 막혀 가까스로 멈췄습니다. 사방 흩어져 날아간 잔해로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911 빨간 차 세 대가 먼저 도착하고 이어서 여러 대의 고속도로 순찰차가 당도한 긴박한 상황에 온갖 생각이 휘돌았습니다. 그냥 수도원에 가서 꽃다발을 만들 것을 혹 수사님들 눈에 띌까 봐 집에서 지체된 시간이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한 사람의 무절제한 폭주로 이 찰나의 순간은 피할 수 없는 사고였지만,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한끗 차이로 생사의 갈림길에서 무사히 구해주셨습니다.

어디쯤 오는지? 궁금하다는 연락에 교통사고라는 단답을 전했습니다. 꽃다발 걱정은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전언, 맘속으로 다짐하는 한 생각 ‘죽어도 수도원에 가서 죽어야지...’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이 없어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가던 길을 조심스레 다시 떠났습니다. 떨어져 나간 옆 거울 대신 백미러를 최대한 왼쪽으로 조절하여 여러 개의 선을 넘어 조마조마 당도한 수도원엔 라파엘 수사님이 반겨주셨지요.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특강은 끝났지만, 미사 시간 직전 도착하여 성

요셉 대축일 미사 참례 후 신부님과 수사님들 환영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두 공동체가 처음으로 함께 모여 원장 신부님과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긴 세월 지나 다시 만나는 수사님들을 환영하는 순수한 기쁨이 차고 넘치던 우리 가르멜 가족의 복된 축일이었습니다.

말은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돌보아 주신 요셉 성인께 감사드린 아주 특별한 날. 무보험자의 난폭 운전엔 변호사를 주선해주고,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준 가르멜 가족의 다정과 사랑 덕분에 아이들에게는 사고 소식 대신 친구 집에서 자고 수도권 주일 미사 참례 후 귀가한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수도권 가까운 자매님 댁에서 자다 깨다 새벽에 전해온 갑작스러운 안셀모 신부님의 선종 소식은 아직도 실감 나지 않은 놀라움이었습니다. 주일 아침 수도권에서 '당신의 종, 이종욱 십자가의 안셀모' 사제를 위해 봉헌 드리는 연미사는, 신부님과 수사님들, 남아있는 이들의 애절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전화로 출국 인사를 드리고 엇그제 떠나오셨다고 말을 잊지 못하시는 수사님들의 안타까움을 다 알 수 없지만, 먼 타국에서 듣는 부음의 슬픔만은 몇 차례 경험으로 조금은 알 수 있는 사무치는 아픔입니다.

보니파시오 신부님께서 고국으로 떠나시기 전날 정오 무렵, 수도권 성당 창가 내정 의자에 앉아 기다리던 중 사순시기 꽃꽂이 검색을 하다 눈에 띈 감실 이미지 하나. 바로 안셀모 신부님께서 올리신 인천 가르멜 수도권 감실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마치 부르신 듯, 오랫동안 까마득 잊고 있었던 신부님 블로그에 저희와 함께하셨던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있던 거

기. 신부님들과 작별의 오찬을 나누며, 며칠 후 또 다른 이별은 짐작도 하지 못한 채 안셀모 신부님 블로그 방문 이야기를 나누던 그날이 마치 까마득한 꿈속의 이야기 같습니다.

꼭 십 년 전, 저희 공동체 연피정을 위해 하늘길 날아오신 신부님! 엘에이 공항에서 수줍은 소년처럼 미소 짓는 신부님 영정을 제대 앞에 모시고, 종신자 재교육 미사 후 연도를 드리며 신부님께서 남겨주신 저마다의 사랑을 추억했습니다. 인천 수도권 피정 집에서 정성으로 돌보아 주시던 자애로우신 첫 만남부터 오르간 연주도 노래도 으름이셨던 꽃을 사랑하신 신부님, 제대 꽃꽂이 사진도 찍어주시고 손수 종신자들 화관을 같이 만드시며 즐거워하시던 정경이 두고두고 따스하게 기억되겠지요. 신부님의 섬세하신 사랑이 신부님의 미소 속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스스로 '머슴 솜씨' 라 칭하신 <안셀모 졸작 모음>에 담아 놓으신 신부님의 작품들은 저희에게 남겨주신 선물입니다. 초창기 어느 형제가 나무를 깎아 만들었다는 소성당 우측 나무 벽에 달린 14처 사진과 묵상글이 평소 신부님 지니셨던 마음입니다.

죽음은 정말 아픔인데…!

아픔이면서도 죽음은 부활이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죽음이 죽임이 아니고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믿음!!

그 말쑥처럼 천상 아기로 태어나신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소서.

오랜만에 비가 오십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전날 챙겨 갔던 연도상차림 보따리를 정

리했습니다. 미처 준비할 수 없던 향로 대신 향아리에 소금을 담아 분향했던 흔적. 아직도 향내가 감도는 고운 소금을 작은 백자에 담아 촛불을 밝힙니다. 신부님은 여전히 미소 띤 얼굴로 눈빛으로 바라보십니다. 참척의 통고를 겪으신 성모님의 품에 안아주시길 천사의 날개를 닮은 바위취 한 송이 봉헌 드립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다 가신 신부님을 추모하며 위령 성무일도 구시경 낫기도를 처음으로 바쳤습니다.

제자가 보는앞에 운명하시며
그에게 동정성모 부탁하시어
당신의 신자들이 운명할때에
위안과 도움주게 섭리하셨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그리스도여
우리를 당신피로 구원하시니
죽음을 맞으면서 겪는불안을
생명의 기쁨으로 바꿔주소서

이세상 하직하고 떠난당신종
주님의 부르심을 들려주시면
죽음이 아예없는 복된곳에서
생명의 주재자를 찬미하리다. 아멘.

- 위령 성무일도/ 낫기도 구시경 찬미가

‘형제’를 떠나보내신 수사님들, 경황이 없으실 텐데 그동안의 안타까운 심정과 자세한 장례미사 소식을 전해주시고, 실시간으로 보내주신 광주 수도원 묘지 봉안당에 모신 사진을 통하여 가르멜의 한 가족임을 새삼 뜨겁게 느낍니다. 두 신부님 곁에 아기처럼 유택을 마련하신 신부님, 아버지 집에서 길이 평안하시길 간구 드립니다.

우리 회원들께서 가족상으로 부고가 이어지는 요즘, 어젠 백수를 사시고 돌아가

신 아버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타국살이 회한을, 오늘은 우리 공동체에서 한국으로 진출한 자매님의 삼십이 채 안 된 샌디에이고에 살고 있던 아드님의 원인 모를 사망 소식에 저희는 할 말을 잊습니다. 그저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탁 드리며, 사랑의 비밀 사다리를 올라 먼 하늘 창공에 기도의 그네를 타고 날아 봅니다. ‘살아있으면 만나겠지요.’ 긴 여운으로 때때로 떠올리는 그리움, 많이 편찮으시다는 투병중이신 신부님께서 수사님 편에 보내주신 영혼의 노래인 묵직한 원고를 마주하며 마음 먼저 문안드립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삶의 여정입니다. 잠시의 이별도 영 이별이 아니기에 ‘그대도 오세요.’ 시공을 초월하여 그리운 이들을 초대하고 또 방문합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이기에.

천상과 지상의 영혼 안에 우리 주님의 사랑만이 담뿍 내리시길 마음 모으며 때마침 당도한 오월의 장미인 은방울꽃(영란화, lily of the valley) 뿌리를 심습니다. 정원지기이신 우리 주님께서 가꾸시는 꽃밭에 은방울꽃 은은한 향기 아롱아롱 손짓하면 하늘 엄마 모시고 “그대도 오세요.”

“어머님께 청하오니 제 맘속에 주님 사랑 깊이 새겨 주소서” *



* 가르멜 프락 *

성모님

안병희(아기예수의 젖마)/ 서울 성 요셉 공동체



성모님!

수없이 글을 썼다가 다시 지웁니다.

고맙고 가슴이 뭉클해서, 그래서 읽지를 못할 것 같아서…….

어쩌면 성모님께서서는 그리도 새하얀 색일까요!

그 가슴에 어떤 색의 물감을 부어도 언제나 하얀색!

어떨 때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다가도,

가슴 울리도록 짙은 향기로 다가오십니다.

내 몸 돌볼 생각일랑 일찍이 접어두고, 내 가슴 상처는 내 것이 아닌 양 생각하고

어찌 어머니인들 언제나 어머니일 수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뒤돌아보면 당신께서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못된 말 하고 뒤돌아 등 보이며 원망했을 때도,

가슴이 너무 아파 어머니 도움 청하며 불러볼 때도

사는 게 힘이 들고, 현실이 두려워 도망치려 할 때도

그러나 뒤돌아보면 먼발치에 언제나 고개 끄덕이며 바라보고 계십니다.

비 오는 곳은날 동산에 계신 성모님을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대신해서 지고 계신 듯 온몸 적시며 묵묵히 서 계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십자가 아래서 고통 중의 아드님을 보셨듯

저의 일상에서 아파할 때 함께 울고, 기뻐하시는 성모님

어머니!

한 손은 당신 가슴에 다른 손은 세상을 향해 서 계시는

너와 나의 평화의 성모님

한반도의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 가르멜 프락 *

그리움의 주머니(2)

김순상(예수의 베로니카)/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계산동 수도원. 성당 옆 너른 공터에는 보랏빛 감자 꽃으로 더불어 흥겹다. 꽤나 넓어서 텃밭으로 수사님과 신부님들이 담뒀을 맡아서 푸성귀 농사를 지으셨다.

감자를 수확할 때는 큰 포대를 가득 가득 채운다. 수도원 앞마당에 자리한 아름드리 살구나무는 따가운 햇볕에 농익고 달콤한 열매를 맺으면 그 향기가 가득하다. 최해월 루시아 형님은 한여름 더위에는 복종음식으로 이분들을 한껏 챙기셨고 농사일에 일가견이 있으시어 신바람 나게 거드셨다. 우리도 따라쟁이가 되고프게 거울이 되셨던 분 중의 으뜸이셨다.

그즈음 많은 금은보화를 줌은 꿈도 꾸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빨갈게 빛나는 루비, 에메랄드, 금반지 등을 한 움큼.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도 주님의 사랑이었을 것. 그때에는 주인을 찾아 줄 생각을 안하고 횡재했다고 좋아하던 꿈속의 마음이 어지러웠다.

이렇게 행복하던 시절도 잠깐, 차곡차곡 올라가는 면담에서 유보되면서 또다시 꿈결처럼 악몽 같은 환상을 겪게 된다. 수도원 성당 앞마당, 아름드리 살구나무 옆에는 아래쪽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고 기다란 장의자가 있었다. 월모임 날 언제나처럼 일찌감치 도착하여 의자에 앉아 있는데 회오리바람과 돌팔매가 나를 향해 폭풍처럼 몰아쳤다. 그것은 유보되어 서글픈 내 마음의 한옆으로 스며든 악령의 장

난이었을까. 뒤따라 달려드는 돌팔매가 무서웠다. 낮잠 자다가 거북이보다 늦어진 토끼만큼 놀랍고 가슴이 서늘하여 짹짜게 성당 안으로 뛰어 들었다.

지금 돌아보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던 직업적 습관이 몸에 배어 정결·순명·청빈의 옷이 몸에 버거웠을까. 유보되어 의지할 곳 잃은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그룹 성서공부도 했으니 어두운 밤길을 한맘으로 넘어가는 축복도 함께 주셨다.

사제서품식이 있는 2월에는 서품식 미사 끝에 재속회원들이 힘을 모아서 축하하러 오시는 가족과 손님들을 위한 다과상을 마련한다. 성당 앞마당에 몇 개의 텐트를 치고 난로를 놓고 정성으로 샌드위치와 따뜻한 음료로 손님을 맞는다. 그런데 잡아놓은 날, 별나게도 해마다 그날따라 유난히 요란스러운 비바람은 장마철, 한여름의 태풍 같았다. 안셀모 신부님께서서는 이 상황을 우리 회원들을 막아서는 환경들로 비유하셨다. **가르멜의 산길처럼 모질고 사나운 삼의 소나기로.**

어느 해 재속회에서 5월 **“공동체의 날”** 행사에 **상주 가르멜 여자수도원**을 찾았다. 비교적 먼 거리였지만 수도원 입구에서부터 계단 따라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진홍색의 철쭉처럼 곱게 미소 지으시며 어머니 성모님께서 반기신다. **에우세비오 신부님**께서 미사 집전을 하셨고 내게 오래 전에 당신께 아들을 위한 기도 부탁을 한 일을

상기시키셨다. 나는 그 후로는 잊고 있었으니 자식의 곤곤함을 기도로 부탁한 것을 어미보다 더 오래도록 마음에 품고 기도해주신 신부님께는 현문우답(賢問愚答)으로 답을 하는 부끄러운 어미가 되었다. 하여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다. **“성직자의 어깨는 하나뿐. 어지간한 일이 아니면 그분들께 기도 부탁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시절 내가 거의 막내였으니 함께 하던 어르신께서는 대부분이 단독회원으로 지내신다. 계산동 시절에 이웃의 한 형님께서 단독을 신청하셨고 후에 거리에서 폐지를 싣고 가시다가 나와 눈이 딱 마주쳤다. 계면쩍게 웃으시는 사슴마냥 슬픈 눈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 당시의 나는 단독이란 나이 들고 병약할 때에 하는 것이란 생각만 했었지 사려 깊지 못하여 따뜻한 말 한마디 못 드린 내가 아쉽다.

하마터면 황반변성과 녹내장으로 시력을 모조리 잃을 뻔하셨던 임옥자 카타리나님. 며느님 황영선 엘리사벳과 큰따님을 재속회원으로 인도하셨다. 형님은 마음처럼 품도 넓으시어 온갖 것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우리는 풀 방구리에 쥐 드나들듯 댁으로 드나들었다. 오락가락 사람도 못 알아보시는 아가다 구역장님, 그날이 그날 같은 모범생 벨라지아님, 잔정이 많으신 세시리아님도 깊은 병마에 고생을 하신다. 아가씨처럼 곱고 본당 활동도 솔선수범하던 엘리사벳은 일찍 주님 품에 안기어 우리를 슬픔에 잠기게 하였다.

그 시절의 우리는 언니처럼, 동무처럼 가슴이 시키는 대로 함께하던 시간이었다.

종신까지 도와주신 이규순 세시리아 양성장님은 치매가 깊으시다. 이춘우 마리아

회장님, 이춘희 데레사 구역장님, 추광지 벨라뎃다님, 여리고 착한 윤미원, 김희라, 박옥경 세 명의 레지나, 2012년에 나와 함께 5명(김희선, 이혜미 로사, 김선금, 김선경)이 종신서원을 했다. 그때 양성해 주시던 김순금 벨라뎃다님은 집안에서 넘어지시어 서너 살 아가가 되어버리신 형제님을 간호하신다. 그 와중에도 묵상기도를 아침저녁 1시간씩, 2시간을 주님과 나누시며 **“하늘사랑 이야기”** 시집을 펴셨다. 오랜 양성 끝에 함께 종신서약을 한 자매들. 나에게 알게 모르게 힘이 되어주신 선배님들, 특히 이규순 양성장님께는 많은 기도가 필요하리라.

기축통화(基軸通貨)란 경제용어가 어제 오늘 정치권에 회자된다. 이는 여러 국가의 암묵적인 동의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통화, 예를 들면 달러, 유로화 등 국제사회 어디서나 사용되는 화폐를 일컫는다.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소통되는 화폐가 있듯이 하느님 자녀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언어로 **기축언어(基軸言語)**를 꿈꾸어 본다. 착하고 아름다운 진선미의 생활을 하며 주님나라를 찾고자 입회한 회원들. 우리들은 침묵 가운데 눈짓, 손짓, 얼굴 표정으로 우리만의 언어를 만들고 그 언어로 서로에게 용기를 주고 배려하며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한다. 온갖 거친 삶 중에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지나야만 하는 우리. 변함없이 살고 살아 성숙한 성장을 이루고자 한다.*

* 가르멜 트랙 *

섬

반숙자 (성 요셉의 벨라뎃다) / 충주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완전고립. 벽시계는 자정을 지나는데 갑자기 세상이 암흑입니다. 여태 저 혼자 떠들던 텔레비전만 시끄럽습니다. 만약 이 시간 집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내게 변고가 생기면 어쩌나 걱정입니다. 저녁준비를 할 때도 멀쩡했습니다. 몇 군데서 내일 이야기를 보내왔고 지극정성 시도 때도 없이 보내는 동영상들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먹통입니다. 충전을 너무 오래 했나 싶어 뉘어보고 흔들어 보고 여기저기 눌러보아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스마트 폰이 우리 생활의 중심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세계를 돌아다니고 지구 반대편의 소식을 나누고 온갖 정보를 얻습니다. 더구나 요즘은 집에 가만히 앉아서 신선식품을 배달받고 보고 싶은 사람들과 화상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라도 안 보면 정서 불안증으로 전전긍긍합니다. 이 편리한 기기를 쓰면서 날이면 날마다 우두커니 앉아있는 집 전화가 무용지물이 되어 끊어버렸거든요. 만능기기 폰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 폰이 먹통이 된 것입니다. 더구나 요즘같이 오미크론이 치솟는 판국에 어쩌라고요. 나이는 고령에 혼자 지내는 처지고 보니 막막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날 새기만 기다려야 합니다. 절해고도가 이런 걸까요? 그래도 거기는 등대라도 있지요. 아파트 창으로 새어 나오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 세상은 어둠입니다.

공연히 등줄기가 서늘해지면서 멀쩡하던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네요.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증세도 그럴다는데 기침도 나네요. 서랍을 열어 타이레놀을 찾습니다. 무슨 보물인 양 잘 모셔뒀는데 갑자기 찾으려니 보이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 밤에 더 아프면 119를 부르라 했는데 어쩌나요? 서로 간에 프라이버시가 엄격하게 암묵으로 지켜지는 곳이 아파트 아니던가요.

내가 잘 못 살아온 탓인지도 모릅니다. 한 아파트에 30년쯤 살면서 오밤중 아니라 더한 시간이라도 문을 두드릴 수 있는 이웃을 만들지 못한 것이 불찰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쪽에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에고이즘도 한몫을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세상에 대고 살려달라고 외쳐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나는 지금 어둠의 세상에 고립되어 sos를 타전할 수가 없습니다.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세상에 문명에 빠져 익사하게 생겼습니다. 손바닥보다 더 작은 것에 생활의 모든 것을 맡기고 눈 감고 귀 막고 천하태평 좋은 세상을 살아왔다는 게 신기합니다. 만약에 무엇이 잘못되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폰이 먹통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아침이면 동녘에 해가 뜨고 저녁이면 해가 지고 밤이 오는 우주의 질서는 변함이 없건만 인간 세상만 난처해지겠지요?

지하면 쓸데없는 물건들을 사기에 조금만 가지고 떠난다 하니 동남아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작은 아들이 필요할 때 쓰라고 큰맘으로 카드를 주었다. 그 카드를 쓴다 하니 가이드가 알려준다. 유럽에서는 본인 것이 아닌 카드를 쓸 경우에는 말없이 무조건 경찰을 부른다. 자신이 대납을 할 터이니 서울에 돌아가서 갇힌다. 바로 그날, 문제의 그 친구가 남편과 내가 지나가는 옆을 바짝 지나며 아주 작은 소리로 국제㉠㉡하며 재빠르게 지나친다. 나만 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작은 소리였다. 깜짝 놀란 나는 황당하고 급작스러운 일이라 기분이 나쁠 틈도 없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내가 만만했을까. 한마디도 물어볼 수가 없었다.

여행 후 함께 못한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야 분하고 화가 났었다. “그 친구는 강박증이 심해서 남편이 먹던 소주병을 경비아저씨들이 보면 창피하다고 가루를 만들어 버린단다. 네가 이해하렴. 다른 일도 잘 참지 않았니. 개는 점쟁이가 자기는 바른말을 잘하는 성격을 타고 났다고 이야기했단다.” 하며 마무리해 주었다. 아, 위대한 점쟁이여!

나의 4도 화상 같은 쉽게 아물지 않은 상처는 성나고 물질도 터졌으니 그 아이를 모르는 고교 동창에게 말해 버렸다. “그 애가 아마도 너하고 생활환경을 비교하면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많았을 거다. 너는 강남에는 안 살지만 자존감이 높지 않니. 더구나 핸섬하고 스마트한 남편을 동행했으니. 이혼한 저를 비교했겠지. 그런데 수입도 없이 어떻게 강남에서 사냐. 강남㉠㉡네. 애, 잊어버려.” 그 말 한마디에 위로받았던 나는 무엇이었나. 어디로 가고 있었나…………

요건 분명하게도 뒷담화였다. 물론 선행은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몰라야 하며 자기 자신도 잊어야 하는 일. 하물며 불편했던 일은 더더욱 조심조심. 그럼에도 3자에게까지 이야기한 어린 나는 무엇을 찾고 있었는가. 복을 짓기는커녕 겸손도 사랑도 놀라서 멀리 떠나버렸다.

기도할 때면 잡념처럼 이기적으로 미숙하게 쏟아냈던 말과 행동이 꼬리를 문다. 저잣거리보다도 더 시끄럽다. 하여 나의 주님께서는 시편 56편을 통하여 눈물을 당신 자루에 담으시어 모든 슬픔에 잠긴 영혼에게 두려움을 없이하여 주신다고 한다. 내 사랑 주님!!!

우리 십자가의 요한 성인께서는 『가르멜의 산길』(영혼이 하느님과 친밀한 합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좁은 길을 표현한 최고의 영성서적)에서 나 자신을 끊고, 비우고, 나를 업수이 여기는 방법이 가장 빠르게 주님께로 다가서는 길임을 가르치신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야 깨닫는다. 그 사건을 통하여 비움의 無(Nada)를 일러주시는 수동적인 기회였던 것을.

주님께서 주신 자리…. 은인의 자리에 그 친구를 세웠다면 나는 좀 더 곰삭을 수가 있었을 것을. 이렇게 남모르게 찾아왔던 정화(淨化)의 찬스는 시끄럽고도 조용히 나를 비껴갔다.*

다시 쓰는 창립사, 평화의 언덕!



<프롤로그>

저만치... 마차산 자락에 둘러싸여 안온한 기운을 품고 있는 집이 있었다. 소요산 자락이 그 앞에서 벗 삼은 집. 그 언덕에 평화의 모후 성모님이 서 계셨다. 한 손은 당신 가슴에, 다른 한 손은 세상을 향해 있었다. 사계절의 신비를 품고 앉은 집, 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도원. 봉쇄 격자창 너머 깊고 깊은 곳엔, 10명 안 되는 적은 수의 동정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나는 하느님 뵙기를 원합니다.” 라는 갈망을 품고, 가대소와 수방을 오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다. 이 평화로운 집은 2020년 6월 11일 창립되었다.

「창립사 20,1」 주님께서 어떻게 이 수도원을 창립하게끔 마련하셨는지 말하겠습니다.

수녀 1 : 의정부 가르멜 수녀원의 창립을 말하자면, 서울 가르멜 수녀원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서울 가르멜은 프랑스에서 5명의 수녀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창립되었어요. 그런데, 6.25 전쟁이 일어나서 안타깝게도 다섯 분 모두 ‘죽음의 행진’ 길에 끌려가시다가 설립자이신 맥달드 수녀님과 데레사 수녀님께서 북한 땅에서 순교하셨어요. 그리고 세 분은 프랑스로 송환(포로 교환)되시었다가 두 분은 다시 서울 가르멜로 오셔서 여생을 마치셨습니다. 현재 가경자 대상 조사 중이고, 시복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있어요.

박지현 : 이러한 설립자의 정신을 이어받아, 통일이 되면 평양에 가려고 지원자를 많이 모집했었다. 원래 21명 정원인데 그 당시 29명이 되었다. 하지만 통일이 될 때까지 국내 창립을 준비하던 중, 캄보디아 주교님의 초청으로 수녀 5명이 캄보디아에 진출했다. 이어 2004년, 서울대교구에서 의정부교구가 분가되었다. 초대 교구장이신 이한택 주교님께서 서울 가르멜 수녀원에서 피정을 하시며, 의정부에 관상 수도원이 세워지길 바랐단다.



2006. 6. 30 기공미사-이한택 주교님 주례

「창립사 3,11」 게다가 또 한 가지 두려움이 겹쳤으니, 내가 기도 중에 들은 것은 착각이 아니었던가? 이것이 나를 괴롭혔습니다. 행여 내가 악마에게 속은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은 극도에 달했습니다. 나는 이때 당한 심적 고통과 수도원 창립의 고생살이를 회고하면, 육신의 고통 따위는 걱정할 여지조차 없습니다. 그 고생이 훨씬 컸으니...

수녀 1 : 2005년에 서울 가르멜 베로니카 외부 수녀님께서 창립 때 쓰라고 메주를 팔아 모은 돈으로 땅을 구입했어요. 2008년 12월에 수도원이 공사 마무리 중에, 사용허가를 받아 곧 완공된다고 하여 10명의 수녀들이 들어갔었어요. 2009년 3월에 업자들끼리 싸움이 나서 건축업자 한 분이 서울 가르멜에 와서 그동안의 일들을 알려줘서 교회 순시를 하게 되었고, 10명은 다시 서울 가르멜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부터 8년간의 법정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봉쇄 안에서 기도만 하던 수녀들이 법원에 가서 하루 종일 진술을 해야 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과 성모님의 도움의 손길 덕분에 30건이 넘는 소송들을 모두 승소할 수 있었어요.

박지현 : 밤 11시가 되어도 돌아오지 않던 수녀님들, 나머지 수녀들은 고리기도를 바

치며 피가 마르는데... 하느님의 얼굴 뵙기만을 바라며, 세상 영혼 구원에 힘쓰던 봉쇄 수녀들이 법정 싸움이 웬 말이더냐! 의정부 가르멜 수녀원 성당, 제대 위 십자가에 매달려계신 주님, 고개를 깊이 떨구었다. 기나긴 질곡의 세월을 다 보고 계셨다는 뜻이 말이다. '마음이 으스러질 듯한 고통에도 불구하고' (창립사 3,12) 수녀들은 어둔 밤의 시련을 감당해야만 했다. 몸도 마음도 피투성이가 되었을 그때였다.

「창립사 31,31」 이거야말로 창립을 방해하는 악마의 올무였습니다. 그러나 오 주님! 당신의 전능은 그 얼마나 뚜렷한지요! 악마가 방해하는 그 방법을 이용하시어 우리에게 더 큰 성공을 이룩케 하셨으니, 주님 당신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수녀 2 : 이곳의 기운이 참 평화롭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저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세워진 수도원이고, 의정부 교구의 목적 역시 북한 선교예요. 이북에 가고 싶은 지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통일을 위해 기도하자는 마음을 담아, 주보이신 평화의 모후상을 모시게 되었어요. 성모상은 우리나라 작가가 조각했고, 실향민 출신 은인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박지현 : 이로써 조성된 평화의 언덕, 공교롭게도 원래 '안흥로' 였던 도로가 지금의 '평화로' 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 인근 고속도로도 '신평화로' 라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동두천 역시 '평화의 도시' 로 불린단다. 수녀들은, "정말 오묘해요. 저희도 그 얘기 듣고, 전율을 느꼈어요." 라고 하시며, 두 팔로 가슴을 감싸 안았다.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찬미하는 기쁨이랄까!

서울대교구장이실 때 2006년~2008년, 걱정

수녀 2 : 당초 진입로가 없어 준공을 포기해야만 했었는데, 신평화고속도로(3번)가 신설되면서 수도권 바로 앞까지 연결되어 서울에서 1시간 정도면 올 수 있게 되었어요. 교통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수도권 창립에 어려움을 주던 진입로가 해결되었고, 2020년 3월에 수도권 건축 준공 받고, 드디어 2020년 6월 11일, 의정부 교구 이기현 주교님과 신부님들을 모시고 축성 미사를 했어요. 모든 것이 멈췄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주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일을 하시며, 길을 닦아 주셨던 겁니다.

「창립사 후기」 창립 당시는 지금 팔렌시아의 주교님이신 돈 알바로 데 멘도자가 아빌라의 주교로 계신 때였는데, 거기 계시는 동안 수녀들에게 친절하셨습니다. 우리 회가 당한 갖가지 수난 길에 주교님은 크게 우리 힘이 되어주셨고….

박지현 : 의정부 교구 초대 교구장이신 이한택 주교님의 초대로부터 시작된 창립의 길,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진입로와 주변의 터널들이 생겨 교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주신 이기현 주교님,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님과 정진석 추기경님, 최창무 대주교님, 정순택 대주교님, 강우일 주교님 등, 많은 기도와 관심을 보여주신 그분들이야말로 데레사 성녀가 창립의 길에서 만나 도움을 받은 주교들과 다를 바 없었다.

수녀 2 : 2005년 땅만 사고 건축할 돈이 없어서 막막했어요. 정진석 추기경님께서



2019.12.06 정진석 추기경님 축일 방문

을 하시며, 본당에 나갈 수 있게 허락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녀들이 나가서 모금을 했어요. 2019년 재건축을 마무리하던 중에 12월 6일 추기경님 영명축일에 찾아뵙고 창립에 대한 과정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어요. 아무 말씀 없이 듣고만 계시더니, “이제야 내 앙금이 풀렸어. 얼마나 많은 은인들이 가르멜 수녀들 믿고 봉헌해주었을 텐데, 잘못되었다는 소식에 속을 끓였겠어. 그 은인들 마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의정부 가르멜 수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며, 그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빛이 나게 될 거야. 수녀들은 살면서 하느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하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느님께서 계속 은총을 주실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수녀들에게 한반도의 평화와 최양업 신부님 시복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박지현 : 마음의 짐을 한시름 놓고 가셨을 정진석 추기경님, 얼마나 훌가분한 마음이셨을까 싶다. 김수환 추기경님과의 인연은 서울 가르멜 수녀원에서부터 오래되었다.

수녀 1 : 김수환 추기경님께서도 지극정성이셨어요. 저희가, “추기경님, 수도권 창

립하려고 땅을 샀어요. 동두천, 북한 가까운 곳이에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무릎을 딱 치시면서, “아, 수녀들이 캄보디아에 가는 것도 위대한 일인데, 동두천에 가서 창립을 한다고? 역시 가르멜이네.” 하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은인들도 많이 소개해주셨고요. 추기경님은 가르멜을 사랑하셨습니다. 사순절엔 맛난 걸 사 들고 오셔서, “나는 가르멜 수녀를 참 존경해. 나는 봉쇄 안에서 하루도 못살아. 그런데 어떻게 평생을 살아?” (다 같이 까르르 웃는다)

박지현 : 수도원 창립에 여러 도움을 주신 제주교구 강우일 주교님께서도 2021년 6월에 오시어, 창립 1주년 기념 피정 지도와 미사를 해주셨다. 수녀들에게 우리나라 최북단에서 기도 지킴이가 되어 달라고 청하시며 용기를 주셨단다.

「창립사 3,2」 적선으로 살아가야 하는 수도원에 적선을 받게끔 마련하시는 주님은 이 수도원을 위해서도, 그 누구로 하여금 그리 하도록 마음을 돌려주실 테니 말입니다. ~ 나는 자주 주님께서 원하신 이상 필요한 것을 주시도록 간곡히 부르짖었습니다.

박지현 : 한국 천주교회 주교님들은 물론 전국의 60여 본당의 사제와 신자들이 함께 걱정하며 동참해 준 의정부 가르멜 여자 수녀원의 창립사. 갈색 수도복을 휘날리며 모금에 나섰던 그 시절! 온통 기적이었다.

수녀 1 : 누군가의 봉헌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형편껏 주머니를 털어 보태주시는 분들이 모여서, 개미군단이 된 거예요. 그 당시 25세의 한 자매님은, “봉쇄 수녀님들이 어떻게 수도원을 짓지?” 그런 생각을 하며 예수님께 약속했대요. 수도원이 완공될 때까지 십일조를 바치겠다고요. 2007년부터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계속 후원하고 있어요. 15년 동안 첫 마음을 간직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수녀 2 : 네, 맞아요. 또 어떤 분은 미사 끝에, 제 손을 잡으면서 친정이 동두천에 있다고. 그런데 그곳엔 미군 부대가 있었고, 인근에 기지촌이 있었다고. 그래서 소외되고 억눌린 사람들이 많았고,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시댁 식구들에게 한 번도 동두천이 고향이라고 말할 수 없었대요. 그런데 “제 고향에 가르멜이 오면 성지가 되겠네요?” 라고 하시며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애금을 봉헌해주셨습니다.

박지현 : 이렇듯 많은 분들의 희사를 받아 창립된 터라, 수도원에 들어와서도 되도록 가난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려고 애쓴단다.

수녀 1 : 주님께서서는 저희가 필요한 것을 미리 아시고, 다 마련해주신다는 것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직접 만들어서 쓰고, 냉장고도 10년 전에 있었던 것 다시 손 봐서 사용하고 있어요. 은인들이 필요한 것들을 구해다 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신다고 식기 등 살림살이를 모두 기증해주셨습니다.

수녀 2 : (고개를 끄덕이며) 네,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어 짐 정리로 바빠 행주 만들 시간이 없어 살까 고민하다가 수녀원에 소창감이 있으니 그걸 잘라 반을 접어 박음질해서 만들기로 한 그날 아침, 외부성당 청소 봉사하러 오신 자매님이 종이 백을 내미시는 거예요. “수녀님들께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봤는데, 이 행주가 떠올랐어요. 제가 소창을 잘라 반을 접어 만들어 왔어요.” 저희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겠어요.

박지현 : 내 말이 그 말이다. 수녀들이 말만 해도, 아니 생각만 해도 살갑게 채워주시는 하느님, 미리 살펴서 마련해주시는 야

2022년 7월 구역모임

〈완덕의 길〉 영적 나눔

관구 참사회

제37장 해설: 주님의 기도에 대한 찬사

이제 우리는 이 책에서 가장 짧은 장 가운데 하나에 이르렀다. 여기서 성녀는 주님의 기도에 대한 찬사를 위해(여기서 성녀는 “이 복음적인 기도” 라고 말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청원들에 대한 해설을 중단했다.

무엇보다도 그것은 경이로움이 담긴 감탄과 존경의 감정을 말한다. “불과 몇 마디 안 되는 말들 속에 어찌면 이렇게도 관상과 완덕이 다 들어 있는지 나는 그저 놀랄 따름입니다” (1절).

또한 여기서 표현되는 성녀의 찬사에는 우리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스승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정이 담겨 있다. 이제 성녀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이 청원들을 드리며 기도하실 때 그분 영혼 안에 생겨난 많은 감정에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감정을 독자들에게 쏟아붓는 것이 성녀의 관심사였다.

이렇듯 「주님의 기도」에 대한 찬사 또한 성녀의 기도 교육에 잘 들어맞았다. 성녀가 제시한 다음의 수칙도 기억할 수 있다. “주님의 기도를 잘 바치려면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즉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스승님 곁을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바 24, 5). 27장에서는 “주님의 기도의 첫마디로 주님은 우리에게 크나큰 사랑을 나타내신다” (27장 제목)는 점을 염두에 두도록 했다. 결국, 성녀는 “이 복음적인 기도가 그 자체로 모든 영적 여정을 담고 있다” 고 확신했으며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 점을 여러 번 강조해서 반복했다. “여기에는 흐벅진 위

로가 담겨 있습니다” (완.바 42, 5).

1. 두 가지 차원에서 읊음

이 기도는 모든 이를 위한 소박한 기도이다. 데레사는 이 기도가 기도하는 모든 이의 입술에 담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개방됐다고 믿었다. 심지어 그것은 극한의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기쁨의 상황, 궁핍한 상황, 어두운 상황, 청원을 드리거나 감사를 드려야 할 상황 등 이 모든 상황에 열려 있다.

성녀는 이 책에서 자신의 기도를 「주님의 기도」에 의지할 수 있는 가능한 많은 방식들을 알고 있었고 또 이를 상기하곤 했다. 일반적으로 성녀는 「주님의 기도」를 많이 읊는 것보다는 섬과 묵상, 심지어 관상이 동반되는 가운데 그 기도를 드리길 선호했다. 그래서 이렇게 권고했다. “주님의 기도를 허겁지겁 몇 번이고 외우기보다는 차근차근 한마디라도 똑바로 잘 바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완.바 31, 13). 성녀는 구송기도를 관상적 거둠의 시작으로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전에는 주님의 기도를 여러 번 드려야 했던 것을 이제는 단 한 번 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완.바 29, 6). 성녀가 스물세 접어들 당시 겪었던 입회 전례에서, 데레사가 가르멜 수도복을 입게 된 다음, 주례자는 다음과 같은 기도와 함께 봉헌에 동반하면서 가르멜 수녀가 살아야 할 관상 생활의 상징인 「주님의 기도」를 데레사의 손에 내어 주었다.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셨나이다. 당신께 청하오니, 이 당신 여종의 기도를 받아들이시고 축복

하소서. 그가 당신의 영감과 함께 이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며 지속되는 기도 속에서 그를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그의 모든 기도가 언제나 당신을 통해 시작되고 당신 안에서 끝나게 해 주소서.”

성 요셉 가르멜 수녀원에서 가르멜 수녀가 사는 일상적인 삶은 주님의 기도를 반복하는 무수한 기회로 점철되어 있다. 적어도 가르멜 규칙은 그렇게 규정한다. 데레사는 거기에 내용적인 면을 부과하고자 했다. “그러므로 매일 수없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기로 합시다. 그 기도와 함께 그분께 우리 자신을 선물로 드립시다” (완.에 73. 5).

그러나 이제 성녀의 관심은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데 지극히 다른 두 가지 방식이 있다는 점에 집중됐다. 1) 하나는 관상가들 그리고 “이미 하느님께 자신을 많이 드린 사람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기도를 드리는 방식을 말한다. 2) 반면, 다른 하나는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긴급한 상황을 바탕으로 「주님의 기도」에 나오는 청원들을 반복해서 드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각각의 청원은 기도하는 이가 “하느님의 위대한 선하심” 안에 잠겨 들 수 있도록 들어 높이는 지렛대와도 같다.

비록 상황이 그럴지만, 거기에 일부러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성녀는 모든 이를 위해 주님의 기도가 갖는 변모적인 효과에 대해 반복해서 언급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이’란 관상가에서 초보자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

“우리가 단 한 번 이 기도를 바친다고 합시다. 우리에게 두 마음이 없고 입으로 외우는 그대로 실행하리라는 것을 당신이 아시면, 당신은 당장 우리를 가멸차게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진실로 대하는 것을 그리도 좋아하십니다. 한 가지를 빌면서 판전 피우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털어서 빌면, 비는 것보다 그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4절).

2. 스승과 더불어 기도함

기도하는 이에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1) 스승 없이 기도하는 것과 2) 기도 여정에서 위험에 대한 의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이다.

자신을 인도하고 식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갖지 못해서 기도 여정의 초기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성녀에게 있어 「주님의 기도」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최고의 스승” 아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보증이었다. 그러면 성녀가 말하는 이 스승은 어떤 분이신가? “오, 영원하신 지혜시여, 오, 착한 교사시여!” (5절).

「주님의 기도」에서도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기도의 여정에 악도 없고 원수의 공격도 없는, 즉 “위험이 도사리지 않는 여정”이라는 거짓 환영을 거슬러서 분명 위험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즉 기도의 여정에는 “삶의 확실함”이란 없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결정적인 안전함이란 존재치 않는다. 또한 기도 그 자체가 예방주사도 아니다. 삶은 모든 차원에서 드러나는 위험인 것이다.

그래서 스승이신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우리에게 매일의 빵과 용서를 주소서”라는 청원을 드린 다음, 기도하는 이의 입술에 마지막 두 개의 청원을 건네셨다. 이는 제자들로 하여금 위험에 대한 변치 않는 의식을 갖게 하려는 것(“깨어 기도하여라”)일뿐 아니라 하느님께서 그들을 유혹에 넘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악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할 “필요”를 납득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가 간직한 마지막 두 개의 청원이다.*

* + 찬미 예수님! *

사랑하는 재속 멘발 가르멜 형제자매님들께

대전 가르멜 수녀원에서 따뜻한 인사와 함께 소식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가 창궐하여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있고, 더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의 화마와 공포가 빚어내는 참담함으로 전 세계가 근심과 탄원으로 연대하는 이때, 형제자매님들께 도움을 청하는 편지를 쓴다는 것이 무척 죄송하고 송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수녀원의 현실이 시급하여 가르멜 회보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수녀원은 1974년에 블록으로 건축한 건물로서, 그동안 수차례 슬레이트 지붕 보수 공사를 했는데도 비가 새고 빗물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석면으로 뒤덮인 천정의 전등에 빗물이 고여 계속 교체하며 지내왔는데, 전문가들의 말씀으로는 누전되어 큰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또 매립된 배관이 터져서 지하실이 물에 잠긴 적도 있고, 여러 곳에 있는 벽 속의 배관도 균열되어 누수가 되고 있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수도관은 철관이라 빨간 침전물이 가라앉고 벽은 가로세로로 갈라져 있어서 외풍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드라이비트로 외장 마감공사를 했는데도 들떠 있어서 못으로 군데군데 박아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 내부는 채광이 안 되어 어두컴컴하고, 통풍이 안 되고 습기가 많아서 1층에는 여름에 천정과 벽에 곰팡이가 피어 성당 등 건물 안에 곰팡이 냄새가 심합니다.

거의 매년 보수 공사 등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개선이 되지 않았으며, 수차례에 걸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는 수녀원의 재건축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작년과 올해에 저희 적은 숫자의 수녀님들 가운데 가장 젊은 수녀님들 두 분이 암으로 수술,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 안에서 새로 입회한 젊은 수녀님들의 건강도 많이 염려가 됩니다.

또 주변의 고층 건물로 인해 수녀원이 흰히 다 들여다보이게 노출이 되어 도심의 붐볐에서 소명을 살기가 매우 어려워져서 건물 구조의 변경도 시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 수녀원 재정으로는 도저히 재건축을 할 역량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도움을 청합니다. 기도와 관상 생활, 노동하기에 적합한 건물이 마련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모두가 어렵고 암담한 이 시기에, 망연자실 하느님만 바라보며 하느님께만 해결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저희이기에 염치 불구하고 회원님들의 따뜻한 마음에 의지하여 지원과 도움을 청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당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에 축복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전 가르멜 여자 수도원 드림

하나은행 (재)대전교구천주교유지재단 가르멜수도원 915-910007-52705



녹슨 배관



녹슨 배관 단면



빗물받이 양동이와 수건들



봉쇄문 위 천장 곰팡이



외부성당 천장



누수로 휘어진 마감재(샤워실 천장)

재속회 소식

종신서약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 날짜: 2022년 3월 27일
- . 회원: 정미연 하느님 뜻의 글로리아
한윤주 삼위일체의 그라시아

+ 영원한 안식을 빕니다

- * 조순남 예수성심의 아녜스
- . 선종일: 2022년 3월 18일
(향년 100세)
- . 고성 가르멜산 성모 공동체

은경축

* 서울 십자가의 성 요한 공동체



- . 날짜: 2022년 4월 11일
- . 회원: 신영순 복되신 동정성모의 데레사
김정애 복되신 동정성모의 로사
박소영 예수성심의 루시아

- * 서형덕 예수의 안젤로
- . 선종일: 2022년 3월 25일
(향년 71세)
- . 서울 성 알베르토 공동체

- * 이정자 예수성심의 모니카
- . 선종일: 2022년 4월 8일
(향년 81세)
- . 부산 예수의 성녀 데레사 공동체

수도회 소식

저희 가르멜 남자 수도회를 사랑해주시는 모든 가르멜 수녀님들과 재속회원들 그리고 은인들과 지인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3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이종욱 안셀모 신부님의 선종 소식은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우리 곁을 떠나실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원하시는 때에 한 영혼을 부르셨으니 저희들은 그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만, 인간적인 슬픔의 감정은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방식의 이별을 맞이하리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에, 그 슬픔과 괴로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수도 공동체 안에서 많은 시간들을 함께 살아왔던 저희 수사님들에게도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준비해야만 했던 장례 예식이 많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산 가르멜 수도원까지 찾아오셔서 조문해주시고, 또한 안셀모 신부님께서 떠나시는 현세에서의 마지막 여정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직접 오시지는 못하셨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장례 기간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재속회원들과 지인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위로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종욱 안셀모 신부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기도 청합니다.

가르멜 수도회 관구장 김형신 이냐시오 수사 드림

미주 재속회 사목방문

김형신 이냐시오 관구장 신부님께서 5월 3일 - 6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남가주 수도원과 미주 재속회 사목방문을 하십니다.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목방문이 잘 이루어지고 관구장 신부님께서 무사히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르멜 영성 특강 안내

-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일시: 5월 13일(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3), 6월 10일 (가르멜 영성과 영성생활 4)
- 강사: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시간: 강연 13:40 / 미사 15:30 (12시 40분부터 입실 가능)
- * 무료강연

가르멜 수도회 젊은이 피정 프로그램 안내

	장소	일시	대상
서울 청년 피정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3층 경당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2:00-3:30	20-40세 청년 (기혼/미혼 무관, 신자/비신자 무관)
광주 젊은이 피정	가르멜 광주 수도원	매월 첫째 토-일	고등학생 이상(남자)

* 문의: 010-2140-7414

성시간

날짜	2022년 5월 28일
지도	박종인 라이문도 신부

- . 매월 마지막 주(토) 오후 3시~ 4시 30분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오후 2시 30분부터 개방)
- . 영성강좌, 성시간, 미사.

첫토요 신심미사

- . 가르멜 영성문화센터 대성당
- . 매월 첫 토요일 10시 30분

맨발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예금주: 재단법인 천주교 가르멜 수도회)

미사신청: 우리 1005-402-642675,
* 미사지향은 문자 바람
(010-6305-5088 권영상 클레멘스 신부)

가르멜수도회 후원회:우리 1005-203-133071
농협 301- 0162-097461

중국선교 후원회:우리 1005-502-535564

성소 후원회:우리 1005-302-535558

홈페이지: [http:// www.carmel.kr](http://www.carmel.kr)

유튜브: 가르멜 수도회 영성센터

앱: 가르멜 수도회 성 요셉 한국관구

가르멜 수도회 로마 총본부 소식

가르멜 남자 수도회에서는 2022년 1년 동안 카리스마 선언문을 읽고 성찰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더불어 수도회의 양성 지침서를 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청년 사목의 일환으로 2022년 7월 아빌라의 신비신학대학원(CITeS)에서 “제1회 국제 젊은이, 신비 그리고 인본주의 만남” (“1st International Youth, Mysticism and Humanism Meeting”)이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3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리스본에서 개최되는 세계 청년 대회 때 파티마에서 ‘젊은 가르멜 수도자들의 만남’ 을 개최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조직 구성을 총본부에서 승인하였습니다.

이번 6년 회기 안에서 수도회의 성인들과 연관된 몇몇 의미있는 기념들을 축하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질 것입니다.

이 기념들 중 첫 번째는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시성 4백주년(1622년 3월 12일)입니다. 총장님은 2022년 3월 12일 교황님께서 집전하시는 미사에 함께하셨습니다.

2023년은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의 탄생 150주년이자 시복 백주년입니다. 2025년은 성녀의 시성 백주년입니다. 그리하여 총회 결정 사항에 따라, 성녀의 자서전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공동체가 읽기를 제안합니다. 이것을 위해 파리 관구와 협력하여, 카리스마에 대한 실제적인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성녀의 텍스트로부터 묵상할 수 있는 짧은 독서와 성찰의 안내서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에는 십자가의 성 요한 시성 300주년이자 교회 박사 선포 100주년인데, 역시 이 기념일들도 성대하게 지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월의 성모Ⅱ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녀시여! 당신은 저의 감미로운 별이십니다.
예수님을 제게 주시어 그분과 하나 되게 하시니.
오 어머니! 당신 베일 아래 쉬게 하소서.
오늘 단 하루만이라도.” (시 5,11)

- 아기예수와 성면의 성녀 데레사 -